

우리네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2003 9/10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275-8505 FAX : 2275-8506
e-mail:kdta@chollian.net
홈페이지:www.kdta.or.kr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떻든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장애를 쓰는지 한국어를 쓰는지 서울말을 쓰는지 사투리를 쓰는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인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라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협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귀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이 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버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아이들

창간 95호 2003년 9/10월호

창간 1992년 5월 25일/

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펴낸이 이윤경/

북은이 황미혜, 김희정/펴낸날 2003년 9월 15일

2 권두언	누가 좋은 교사입니까?	이창미
4 보육정책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	이윤경
11 현장교육 1	선생님! 이 꽃 이름이 뭐예요?	권소희
16 현장교육 2	전통차 연구	이교진
24 현장소식 1	서울손님 맞이하던 날	신선주
26 현장소식 2	서울지부 근기법 모임 화이팅!	이수미
28 현장소식 3	남도땅의 통일무지개는 우리 손으로...	박화명
30 현장소식 4	부산시 보육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결성식 보고	김명선
39 지부 수련회 보고 1	떨리는 마음으로 참가한 여름 수련회	한송이
41 지부 수련회 보고 2	경기지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박양숙
43 지부 수련회 보고 3	그 때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박미영
44 지부 수련회 보고 4	세상은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보인다.	김원희
46 새내기인사	부산의 물오리입니다	박은미
48 인물탐방기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녀의 항상성-종교와도 같다.	최선희
50 좋은 그림책소개	나도 루이의 친구가 되고 싶다	김정애
53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행복한어린이집 아이들의 이야기	장명신
56 아이들과의 하루	사랑을 나누면...?	이정미
58 육아일기	일년 전 송이가 태어났-네	주로미
61 세상읽기	보육교사의 큰 자리	박말신
63 상담실 Q&A	부당해고	편집부
65 새로운 세상과 만나기	새로운 세상과 만나기	김휘경
67 알림란		편집부
69 보육계풍향		편집부
75 소식과 소식		편집부
84 편집부에서		편집부

누가 좋은 교사입니까?

이창미 ·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소장

좋은 교사는 단련되어집니다.

누가 좋은 교사인가? 우리 모두는 좋은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교사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교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서, 공부를 많이 해서, 경험이 많아서 좋은 교사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전문적인 영역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은 더욱 더 아니지요. 좋은 교사는 현장에서 끊임없는 선택과 실천을 통해 단련되고 만들어집니다. 보육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기회를 주지만 보육현장은 많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때때로 무능력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생활의 단조로움과 시작도 끝도 없는 보육업무들, 교사로서 존중받고 있지 못하는 근무환경,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만큼도 실현할 수 없는 현실은 때때로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그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고 좀 더 능력 있는 좋은 교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열정과 감동은 교사의 힘입니다.

예전에 동료들과 교사는 예술가인가, 과학자인가에 관한 해묵은 논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사는 무엇보다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과학자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저는 지금 교사는 예술가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육교사의 힘은 예술가처럼 감동과 열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인간 성장의 비밀을 볼 수 있습니다. 눈도 잘 못 뜨는 신생아가 어느새 교사를 보고 웃고, 뒤집고, 고개를 들고, 배밀이를 하고, 기고, 걷고, 뛰 어다닙니다. 그냥 자라는 것 같은 아이들의 끊임없는 시도와 애씀이 우리들을 감동시

키는데 충분합니다. 기질적인 장애로 정상적 발달을 방해받는 장애아동들조차도 수십 번 수백 번 성장을 위한 시도와 실패를 하면서 결국은 발달을 합니다. 이렇게 지치지 않는 아이들의 생명력에 우리는 감동 받고, 우리의 부드러운 손길이 황금보다 귀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는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감동은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열정은 적극성과 집중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내면세계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이들의 가치와 희망을 볼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이 행운을 얻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용기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사랑하는 용기가 없다면, 포기하기 전에 수천 번 시도해보는 용기가 없다면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포기하기 전에 수천 번 시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감동과 열정으로 사는 교사는 사랑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남미의 교육학자 파울로 프레이리리는 교사의 사랑과 용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교사들의 활동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사랑이란 아동들을 향한 것일 뿐 아니라 가르치는 과정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교사들의 낮은 봉급과 교사들에 대한 홀대와 부조리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용기는 아동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힘입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움에 무기력해지지 않기 위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부정해서도 안 되고, 두려움에 스스로 굴복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기 없는 두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두려움 없는 용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교사의 감동과 열정은 아이들을 자라게 하고 모두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힘이 됩니다. 교사의 사랑과 용기는 모든 두려움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을 제공해 줍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과 힘든 보육현장은 아이들과 좋은 교사가 있어 희망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사들을 감동과 열정이 넘치는 예술가로 만들어 주고, 예술가인 교사는 사랑과 용기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포기하기 전 수 천 번 시도하는 사랑하는 용기를 가진 여러분 모두가 좋은 교사입니다!

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

이윤경 · 한국보육교사회 공동대표

1. 보육예산은 사회적 투자비용이다.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8월 27일 발표된 통계청 인구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65세 이상 노년인구가 2000년 총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데 이어 2019년이면 14.4%로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이면 20.0%로 초고령사회가 된다.

프랑스나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이 고령화사회 진입단계에서 고령사회가 되기까지 길게는 100여 년, 짧아야 20여 년 걸린 것과 달리 한국은 19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초고령사회가 되는데는 7년밖에 안 걸려 고령화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라고 한다.

여기에 출산율 1.17이라는 경이적인 수치가 더해진다. 이제 인구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문제이며 동시에 사회유지를 위한 긴급하고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정부는 출산율의 저하 원인으로 ① 20대 가임여성 인구의 감소, ② 혼인전수의 감소, ③ 초혼연령의 상승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양육부담에 따른 출산기피, 또는 일과 가정의 병행을 위한 자녀수/출산시기 조절 등도 중요한 원인으로 들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생산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비율의 증가로 나타날 사회비용의 증가이다. 즉, 일할 젊은층이 줄어들어 국가 수입은 저하되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각종 의료비, 사회보장비 등이 증가하며 연금재원은 고갈되거나 노인 연금을 부담하기 위한 젊은 세대의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결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에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양육부담의 사회적 지원 제도인 보육예산은 소비성 예산이 아닌 투자비용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이때 보육예산은 시설 설치나 보육료 지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보육의 질적 향상의 문제는 사회구성원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 역시 투자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아직도 사회복지예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과 이데올로기가 많이 있다. 빈곤, 결손, 장애 등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을 만들어 주는 일이 경쟁사회에서 불필요한 낭비적 예산이라는 관점이 그것이다. 이들 약자에 대한 복지예산은 비생산적이

고 소비적이며, 다만 사회불안의 예방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지불되어야 할 비용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많이 있다. 보육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관점은 여지없이 드러나서 생계가 곤란한 빈곤층에 대해서만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극적인 지원 정책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최근 급속한 출산율저하로 인구문제가 대두되면서 조금씩 이러한 인식에 변화가 오고는 있지만 사회적 양육이라는 보육제도에 투자되는 예산의 수준은 아직까지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사회구성원의 재생산과 이들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돌봄을 받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보육예산 역시 소비성 예산이 아닌 사회적 투자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2. 무엇에 돈을 쓸 것인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는 쓰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된다. 가정을 예를 들어보자. 의복비가 많이 나가는지 문화비(도서구입비나 공연관람료 등)가 많이 나가는지, 외식비의 비중이 큰지 등등, 주로 지출되는 항목과 비율에 따라 그 가정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삶의 가치로 두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자기관리와 건강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가장 우선순위로 지불할 것이고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레저나 취미생활에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하지만 정부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방예산은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무엇을 우선시 하고 있는가 되물게 된다.¹⁾

1) 경향신문 9월3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2004년 내년도 예산안을 1백17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키로 합의했는데 국방예산은 이 중 GDP 대비 2.8%선인 18조9천억원 수준에서 편성키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2003년도 국방예산 18조2038억원) 이는 전체 국가예산의 16%에 달하는 규모이다. 현재 150억 달러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90억 달러의 러시아 국방비(러시아 당국 공식 발표 액수 기준)를 훨씬 능가하고 있으며, 170억 달러의 중국 국방비(중국 당국 공식 발표 액수 기준)에도 필적할 만한 큰 액수로 중국, 러시아와 대등한 군비경쟁을 펼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다.(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2002년) 이에 비해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은 30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29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1998년도 기준) 만약 2003년도 국방예산을 10%만 삭감하여 1조 7,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면 사회복지 관련 중액 예산을 두 배로 늘릴 수 있고, 중산·서민층 생활 향상 지원 예산이나 쌀 경작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정 지원 예산을 3배로 늘릴 수 있다.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이 많더라도 어떤 분야에 주로 돈이 사용되는가를 보면 정책의 성격을 알 수 있다. 흔히 독일이나 영국을 보수적인 복지국가로 분류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아동관련 예산의 많은 부분이 보육시설 설치, 운영 등에 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출산수당, 양육비지원과 같은 직접지원예산에 배당되어 있다. 즉, 여성의 역할을 양육책임자로 규정하는 보수적인 시각이 국가예산에 반영된 예라 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리양육시스템을 마련하는데는 소극적이고 여성이 가정으로 돌아가 직접아동을 양육하도록 유도하는 지원시스템에 더 많은 예산을 분배한다는 것이다.

최근 대한매일 2003년 9월 8일자 기사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이원형 의원은 출산 때 50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4세미만 자녀양육 시 아동 한 명당 매월 5만원씩 보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마련하여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런 수당을 주는 데는 연간 2조 1천억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4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출산억제정책을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고, 앞으로 출산수당이나 아동양육 보조수당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자녀양육에는 비용만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의 투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50%에 이르는 취업여성들이 자녀수를 조절하거나 자녀출산시기를 조절하는 등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최근 한국여성민우회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43.6%가 직장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우선 조건으로 보육시설의 확대와 질적인 향상을 들고 있다. 물론 출산이라는 사회적 기여에 대해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출산 이후의 양육과정에 대한 지원 없이 이러한 출산비용만을 지원한다고 해서 실제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양육의 책임과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마련이다. 따라서 양육부담을 사회적 제도로 분담하기 위한 보육예산이 우선적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3. 보육예산 무엇이 문제인가?

1) 너무 적은 돈

필요예산에 비해 실제 집행되는 예산의 규모가 너무 적다. 총 보육비용 중 부모부담율이 74.6%(김종해, 2003)에 이르고 있고 정부지원시설(국공립 및 법인시설)의 비율이 16%에 불과한 상황이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OECD국가

와 비교할 때 최소한 정부부담비율을 50%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 현재보다 2배 이상 보육예산이 더 필요하다.

2)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비용이 부족하다.

질적 향상의 핵심은 보육인력 - 보육교사의 질이다.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국공립시설과 지원이 없는 민간시설간의 임금격차는 결과적으로 서비스 질의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2003년 보육예산을 살펴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8만 여명이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데 비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종사자의 수는 4만 여명에 불과하다. 또한 인건비 세부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출산휴가 등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이나 재교육을 위한 비용 등이 전혀 상정되어 있지 않아 기본적인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 전체 민간시설 18,985개소(개인, 법인의, 놀이방 포함/ 2002년 12월 복지부 통계) 중 그나마 교재교구비 지원을 받는 시설은 7,878개소에 불과하다(41%수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의 상당수가 10년 이상 되어 노후한 상황인데 개보수비는 겨우 35개소에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전국 국공립보육시설 수 1,330개소/ 2002년 12월 현재) 이는 아동의 양육환경으로서의 보육시설에 대한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정부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정책의 실질적인 중요성과는 별개로 사회적 합의수준과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즉,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출산문제에 대한 대책은 일회적인 출산수당의 지급으로, 또는 여성들에게 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캠페인이나 홍보로 나타날 수도 있다. 또는 인구감소로 예상되는 인력문제에 대한 대처로 이민이나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육예산의 증대가 사회적 투자로 인식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추가인력의 유입 없이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는데 유리하다는 점을 확고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아동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해 가정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즉, 경제적 환경에 상관없이 보육이 필요한 경우 보육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

미하며 이를 위해 소득별 차등지원의 폭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즉 보육료 지원대상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 보육예산이 필요한 만큼 확보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회는 지속적으로 보육예산의 확대를 주장해 왔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국공립시설의 확대 및 취약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교사재교육 비용
 - 여기에는 단순히 국공립시설 신축비용, 장애통합시설, 야간보육시설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 비용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취약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에게 필요한 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과 교육기간동안의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2)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확대
 - 현재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취약계층이외에도 평균가구소득이하의 모든 가정에 소득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 3) 민간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 국공립시설의 운영기준에 준하여 운영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동일한 인건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

- 4) 보육교사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²⁾
 - 초과근무수당 지급,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등

2) 2002년 복지부에서 실시한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추가되어야 할 예산 항목이 나오는 데 다음은 그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 ① 업무유형에 따른 추가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조사결과) 취사 인력 필요 비율-20.4%, 사무 인력 필요 비율-16.8%, 특수교사 인력 필요 비율-7.1%, 간호인력 필요 비율-5.7%, 영양사 필요 비율-5.7% 등
- ② 2교대 또는 당직근무를 위한 추가인력 인건비 지원.
조사결과) 10시간이상 근무자의 비율 83%
평균근무시간 보육사업지침보다 많은 10.6시간.
- ③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지원을 위한 인건비
조사결과) 인력공백 시 대체교사를 실제로 고용하는 비율 29.2%
87.9%의 시설이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있어야만 대체인력 채용 가능하다고 답변.

5. 마치며

몸이 아프기 전까지는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가야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얼마나 돈이 들지 알 수 있다. 만약 제대로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큰 질병을 얻게 된다면 건강관리에 드는 돈의 몇 배의 비용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평소에 꾸준히 운동과 식사를 조절하여 건강을 관리한다면 쓸데없는 돈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행복하게 질 높은 인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면 2-30년 후에 우리는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바로 지금이 보육사업의 건강관리가 시작되어야 할 때이다.

참고자료) 2003년 보육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예산 (A)	2003예산 (B)	증감 (B-A)	%	주 요 내 역
계	210,280	299,939	89,659	42.6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05,164	169,240	64,076	60.9	○ 지원대상:40,729명 - 기존지원:22,243명 - 신규지원:18,486명 ○ 보수수준:7% 인상
보육료 지원	97,446	117,143	19,697	20.2	○ 지원대상:210천명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48,966	61,191	12,225	25.0	○ 지원대상:118,897명 - 법정저소득층 자녀:39,744명 - 저소득층 자녀: 79,153명
- 만 5세 아 무상보육료 지원	48,480	50,903	2,423	5.0	○ 지원대상:86,982명 - 농어촌:25,720명 - 도시지역:61,262명 ○ 지원수준: 90-125천원/인.월
- 장애아 무상보육	-	5,049	5,049	신규	○ 지원대상:4,285명 (취학전 장애아동) - 중증장애아:2,141명 - 경증장애아:2,144명

구 분	2002예산 (A)	2003예산 (B)	증감 (B-A)	%	주 요 내 역
보육시설운영 지원	4,014	4,156	142	3.5	
- 민간시설교재 교구비	3,445	3,445	—	—	○ 지원대상:7,878개소
- 보육시설차량 운영 지원	569	711	142	25.0	○ 지원대상:790개소 (농어촌 시설)
보육시설 기능보강	2,070	6,587	4,517	218.2	○ 신축:65개소 — 영아전담:50개소 — 장애아전담:10개소 — 정보센터:5개소 ○ 중개축:6→50개소 ○ 개보수:35개소 ○ 장비비:75개소
보육인프라 구축	440	1,505	1,065	242.0	
- 보육정보센터 운영	440	1,105	665	151.1	○ 중앙정보센터 지원 — 운영비:170백만원 — 설치비:150백만원 ○ 지방정보센터 운영 — 대상:11개소
- 평가인증제 실시모형개발	—	100	100	신규	○ 평가인증제 도입 지표 개발 및 시범사업
- 보육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	200	200	신규	
- 보육인력자격 관리 지원	—	100	100	신규	○ 시설장·보육교사 관리기관 설치·운영
어린이집운영	878	978	100	11.4	○ 과천청사:315백만원 ○ 대전청사:663백만원
민간단체지원	57	57	—	—	○ 보육시설연합회 지원
행정경비	211	273	62	29.4	○ 기본사업비

선생님!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우연한 기회에 서울 지부에서 주최하는 '도심 속 생태놀이' 라는 연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일정의 연수라 별반 기대를 갖지 않고 참가했던 저는 저와 우리 아이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 아니 생각해야만 하는 숙제를 안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함께 참여했던 모든 선생님들이 저와 똑같은 숙제를 안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재산목록 1호 '자연' 이란 것이죠. 요즈음 우리의 환경을 보면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늦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저희에게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신 강사 선생님, 숙제를 풀어나갈 연수 참가자 선생님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희망' 이란 단어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시 간	활 동	비 고
9:00~10:00	접수 및 조별나눔	
10:00~12:00	나무와 풀과 꽃이름 알기와 유래에 대해서	
12:00~1:00	점심시간	
1:00~2:00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감 만들기	
2:00~3:00	하천생태 돌아보기-양재천	
3:00~3:30	간단한 다과 나누기, 인사 나누기	

- 연수일시 : 2003년 7월 17일 (목)
- 장 소 : 양재 시민의 숲
- 주 최 : 한국보육교사회 서울지부
- 연수일정

【나무와 풀과 꽃이름 알기와 유래에 대해서】

◆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1. 자연을 접촉하는 것은 감성교육입니다.
2. 아이들에게 무언가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자연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3. 아이들이 자연에 흥미를 느끼고 자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선생님! 꼭 알아두세요.

1. 아이들 패턴에 맞도록 장소를 선정해 주시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미리 판단하여 가지 않도록 해 주세요.(아이들에게 되도록 '-하지 마라' 란 소리를 해야만 하는 곳은 피해 주세요)
2. 야외활동시 끈 나시는 피해주시고 목이 많이 파이지 않은 소매 티셔츠에 긴 바지, 양말, 운동화, 모자를 착용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야외활동에 맞는 복장 착용이 벌레나 나뭇가지 등에서 아동을 보호해 주고, 알려지 아동의 경우 머리를 벌에 쏘이면 쇼크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자는 필수로 써야겠지요..)
3. 과일향이 나는 향수나 화장품은 피해 주세요.(좋지 않은 곤충들이 좋아하는 향입니다)
4. 사탕이나 초콜렛 같은 간식들은 피해 주세요.(벌레들이 모여들어 아동에게 자연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 생태 교육을 하실 때에는...

- 여러 가지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 스스로 찾아 볼 수 있도록 계획해 주세요.
ex) 애들아! 오늘은 잎이 뾰족한 나뭇잎들을 찾아볼까?
- 풀과 나무의 이름을 알려 주실 때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유래나 뒷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 해 주세요. 굳이 이름을 알려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들 스스로 이름을 지어보게 하는 것도 좋은 교육 활동입니다.
- 풀이나 나뭇잎, 또는 나무들을 이용한 놀이를 해보세요. 아이들이 자연을 좀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양재 시민의 숲에서 만난 나무들

- 침엽수: 뾰족한 잎이 다섯 개가 넘지 않는 나무를 말합니다.
대부분이 잣나무 종류이고 추운 곳에서 살며 열매가 아주 실하다고 합니다.
(뾰족한 잎이 3개: 니기다 소나무 / 뾰족한 잎이 2개: 일반 소나무)
☞ 여기서 잠깐: 잣은 다람쥐와 비슷한 청솔모가 좋아하는데 먹이가 모자라면 굶어 죽기 보다는 병에 걸려 죽는다고 합니다.
- 사시나무: 흔히 '사시나무 떨 듯 떠다' 라는 말이 있지요? 사시나무의 이파리가 떠는 모습을 보고 유래된 말입니다.
- 플라타너스: 양버즘나무라고도 합니다.
- 칠엽수: 우리가 친근하게 알고있는 마로니에 나무입니다. 7개의 이파리를 가져서 칠엽수라고 합니다.
☞ 여기서 잠깐: 마로니에나무에서는 연인들을 달콤한 사랑에 빠지게 하는 향긋한 향이 난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로의 마로니에 나무가 많은 마로니에 공원 에서 사랑을 속삭이러 가는 연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
- 벚나무: 흔히 일본의 국화라고 알고 있지만 얼마 전 자생지가 우리나라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나무가 약해서 목재로는 쓸 수 없고 수명은 약 80년 정도라고 합니다.
- 단풍나무
- 전나무: 나뭇잎으로 나이를 알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 중국단풍: 마치 생김새가 오리발처럼 생겼답니다.
- 명자꽃: 집에 심으면 여자가 바람난다고 해서 가정에서는 심지 않고 음주가무를 즐기는 곳에 가면 이 꽃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
- 개망초: 나라를 망하게 한 꽃이란 뜻입니다. 오랑캐가 쳐들어 왔을 때 전해졌다고 하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비꽃' 도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자작나무: 나무 중 유일하게 하얀 나무라고 합니다. 백두산에 자생하고 추운 지방일수록 껍질이 얇고 여러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 느티나무: 은행, 주목에 이어 세 번째로 장수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오래 살고 병해충이 적은데다가 그늘이 많이 생겨 마을의 쉼터에 정자와 함께 많이 심어진다고 합니다.
☞ 여기서 잠깐: 은행나무는 1000년을 살지만 잎, 수가 따로 있어 정자 근처에는 잘 심지 않는다고 합니다.

🍃 필자소감_위의 나무들 이외에도 철쭉, 박태기나무 등등 여러 나무들을 만날 수 있었

습니다. 나무와 풀들의 이름에 얽힌 유래를 들으며 나무를 보니 자주 보던 나무도 새롭게 보였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나무들의 이름들이 어찌나 귀에 쏙쏙 들어오던지... 지금 야외활동을 계획하셨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열심히 듣고 메모를 했지만 모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식물도감을 참조하셔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와 놀이감 만들기】

◆ 놀이감을 만들 때 주의해 주세요.

1. 인공접착제는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2. 살아있는 생물은 되도록 꺾지 말아 주세요. 되도록 떨어진 잎을 이용해 주시거나 자생 능력이 뛰어난 식물들을 이용해 놀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와 놀이감

- 단풍나무 열매 던지기 :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보면 열매가 프로펠러처럼 회전을 하며 날아갑니다. 말리면 더 잘 돌아갑니다.
- 손수건 물들이기 : 하얀 손수건에 빛나무 잎들을 대고 돌돌말기로 쥘어 보세요.
- 나무를 이용한 얼음 땡 : 나무에 대해서 관찰한 후 나무로 경계선을 두거나 일정한 나무에 손을 대고 있으면 술래가 잡을 수 없도록 규칙을 정한 후 활동해 보세요.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자기 손바닥보다 큰(작은) 나뭇잎 찾아오기
- 나뭇잎 릴레이 : 2인 1조가 되어 한 친구는 커다란 나뭇잎을 다른 친구가 목표 지점 까지 밟고 갈 수 있도록 나뭇잎을 옮겨놓는 게임입니다. (2인 이상이 할 수도 있습니다.)
- 질겅이 풀로 제기 만들어 '제기 차기' (양지바른 곳에서 난 풀이 더 질기다고 하네요)
- 강아지풀로 '꽃수염 만들기'
- 토끼풀로 여러 가지 장식품 만들기(반지, 팔찌, 화관...)

✿ 필자소감_열심히 받아 적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보다 다양한 놀이가 무궁무진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위에 나열한 놀이들 외에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놀이 또한 많

을 것이구요. 그러나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는 한가지라도 지금 직접 실천해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천 생태 돌아보기】

◆ 고기들을 눈으로 관찰하면 더 좋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저기 고기들이 가고 있네' 하면서 하천을 따라 걸어보세요. 아이들은 눈 속에는 분명히 고기들의 움직임이 보일 것입니다.

✿ 필자소감_제가 열심히 적고 있을 때 강사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적지 마세요. 뭍 배워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을 느끼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도 펜을 놓지 못하는, 이제는 기회가 주어져도 즐기지 못하는 제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 지.... 우리 아이들도 나처럼 부끄러워하며 손에서 펜을 놓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전통차 연구

1) 전통차 연구의 개요

☞ 차의 기원

기원전 3000여 년 즈음 중국의 황제 염제신농씨의 전설로 불의 상용법과 의술을 가르쳤으며 차나무를 발견한 인물이다. 그는 특이재질로 배가 속이 다 들여다보일 정도로 투명해서 음식을 먹은 후 배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음식이 어떻게 소화되어 어디로 흡수되는지 알 수 있었다.

주로 생식을 하던 시기라 백성들이 여러 질병이 시달렸다. 신씨가 직접 각종 식물, 동물을 먹여 인간에게 이로운 것과 해가 되는 것을 관찰하였는데, 하루는 우유빛 꽃이 핀 나무의 어린잎을 따서 먹었다. 그랬더니, 뱃속이 깨끗이 씻겨지는 청량감을 느끼고 푸른 잎이 뱃속에 들어 있는 내장들을 깨끗이 씻어 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신농씨는 이 푸른 잎을 사(査)라 불렀고 백성들에게 꾸준히 먹기를 권하였고, 사는 다(茶)로 불리게 되었다.

☞ 전통차의 개념

우선, 차라는 것은 차나무의 잎으로 만든 음료에서 시작되고, 음료문화사적으로 "기호음료"라는 의미를 가져, 차란 식물을 재료로 한 기호음료인 것이다. 이에 전통의 의미를 더하면 "어떤 식물이 그 나라의 풍토에 오랜 기간동안 적응하고, 그 식물을 이용하여 만든 기호음료"가 전통차가 되는 것이다. 동물을 이용한 음료, 커피, 당제는 전통차로 보지 않는다. 일부 다도가들 중에는 차나무의 잎으로 만든 것만을 전통차라고 하고, 술잎차나 들국화차 같은 것을 대용차, 모방차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아연각비에서 중국의 경우를 비유한 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 전통차 연구의 목적

① 서구화된 인스턴트 음료, 탄산음료를 즐겨 먹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기호음료인

차를 제공하여 자극적 입맛에 길들여진 미각을 되살리고, 신토불이 먹거리 문화로 바로 잡는다.

- ② 따뜻한 차를 섭취, 수분 공급과 면역력을 키워주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 ③ 성인인 교사의 기호음료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④ 차 마시는 활동은 대화와 안정을 찾는 비형식적인 건강 교육활동으로 생활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도모한다.
- ⑤ 오감을 살리는 교육프로그램의 확대를 도모한다.

2) 전통차 연구의 실례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본 전통차에는 매실차와 보리수차, 식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보리수차를 소개한다. 보리수의 경우 계획 없었으나 보리수 열매를 수확하는 활동부터 시작하여 맛보는 작업까지 모두 아이들이 함께 하는 흥미있는 활동이었다.

보리수차 담그기

활동일: 6월 11일

준비물: 보리수 열매, 설탕

1. 보리수 열매 따기

농장에 가니, 보리수 나무에 빨간 열매가 다닥다닥 열려 있었다.

몇몇의 아이들과 보리수를 따서 먹다가, 차로 담그기로 결정.

냉면 그릇 하나 가득 보리수를 따서 돌아옴.

농장의 보리수는 개량종으로, 어른 손가락 1마디 정도의 크기이고 시고 단 맛을 지니고 있다.

껍질이 매우 얇고 보드러워 금방 무른다.

2. 보리수차 담그기

1) 깨끗한 물에 살살 담귀 씻는다.

2) 물기가 빠지면 설탕에 재워 놓는다.

* 보리수 열매 자체의 단 맛을 고려하여 매실차의 설탕보다는 적은 양을 사용했음



- 3)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병 입구를 랩으로 둘러싼 뒤 뚜껑을 닫는다.
- 4) 차의 이름과 만든 날짜 이름표를 붙인다.

보리수 차의 변화와 맛 보기

활동일: 6월 24일

6월 11일에 담긴 보리수차병에 하얀 이물질이 낀다.
6월 5일에 담긴 매실차병에는 이물질이 끼지 않았다.

1. 보리수차병과 매실차병 비교

교사 보리수차병과 매실차병이 다르지 않니?
미강 매실차는 매실이 위로 둥둥 떠 있는데요.
승진 매실이 쪼글거려요.
무선 설탕이 밑에 있어요.
교사 보리수차는?
무선 설탕이 없는데요? 다 녹았나봐요.
교사 보리수차병을 더 자세히 보자.
혜영 하얀 게 있어요.
승진 매실차병에는 없는데.
교사 쪼글거리면서 물방울이 올라온다.
미강 거품 같아요.
교사 하얀 게 뭘까?
미강 공기가 들어가서 상한 것 아니야?
무선 밀가루 같아요.
승진 물이 올라와서 딱딱하게 굳었어요.
교사 밀가루는 아니야. 밀가루는 밀로 만드는 거니까.
공기가 들어가서 상했을까? 뚜껑을 열어서 맛을 보면 알 수 있겠다.

2. 보리수 차의 냄새와 맛보기

뚜껑을 연다.

아이들 술냄새 나요. 포도주 냄새야. 발가락 냄새야.
교사 시큰한 냄새가 난다.
(병에 붙은 하얀 거품을 손가락에 묻혀 먹어본다.)
미강 시고 짭은 맛인데, 너희들도 먹어볼래?
아이들 싫어요.
교사 이 거품은 보리수가 차로 변하면서 생긴 곰팡이야. 먹어도 되는 곰팡인데, 곰팡이로 만든 음식 중에는 된장이 있어. 곰팡이가 생긴 건 설탕이 부족해서 생긴 거야. 설탕이 보리수차가 상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야.
그러면 보리수를 먹어보자. 처음 농장에서 먹어본 맛 기억나니?
아이들 처음엔 시었는데, 씨가 있어 달콤했어요.
미강 씨가 있어서 딱딱했어요.
(보리수를 먹어본다.)

미강 (먹다가 뱉는다) 맛이 없어, 입이 뻣뻣해요.
무선 뻣뻣하고 질겨요.

교사 이번엔 물맛을 보자.

제로 보리수와 물을 거른다

미강 처음에는 헛바닥이 좀 따가워요. 자꾸 먹으니 맛있어요.
무선 아주 달아요.
승진 조금 술 같아요.
미강 옛날에 집에서 포도주를 먹었는데, 아이들이 먹어도 되는 포도주였는데, 그 맛하고 비슷해요. 아주 맛있어요.
교사 감식초 같아. 신 맛이 나는데. 시고 달다.
혜영 매실차도 먹어봐요.
교사 매실차는 아직 안 익었어. 100일 지나야 먹을 수 있어. 9월에 먹을 수 있어. 설탕 대신 소주를 넣으면 진짜 술 같겠다.
차를 남겨서 간식 시간에 동생들 나누어주고.....
그럼, 남은 열매로는 무엇할까?
혜영 뭘 만들어요.

교사 뭘 만들지?
 아이들
 교사 염색놀이할까? 장미잎처럼. 그리고 씨를 말려 모자이크 놀이하자.
 아이들 좋아요.
 교사 그럼, 큰 통에 넣고 쪼물쪼물 으깨면 씨를 발라낼 수 있어.
 외국에서는 포도주를 만들 때 아주 아주 큰 통, 사람이 10명쯤 들어가는
 큰 통에 포도를 가득 넣고 여자들이 맨발로 들어가서 춤을 춘대. 남자들
 은 밖에서 노래도 부르고 연주도 하고, 그러면 포도주를 맛있게 만들 수
 있대.
 무선 나도 알아요.
 씨를 발라 햇볕에 말린다.

오후에 교사의 생일파티가 있었는데, 보리수차는 그 맛으로 인해 교사들의 음료가 되었다.

☛ 곰팡이가 생긴 이유는 설탕의 양이 부족해서이다.
 치를 담글 때의 설탕의 양은 과실의 배 정도인데, 보통은 과실보다 더 많이 넣는다.
 설탕의 양이 부족하여 발효가 되어 보리수주가 되었는데, 설탕의 양을 충분히 넣으면 맛있는 보리수
 차가 된다.

보리수물과 장미물 염색활동

활동일 : 6월 25일

준비물 : 보리수물, 장미물, 백반, 한지

1. 냄새 비교

교사 보리수물과 장미물이 있어.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자.
 (보리수 물병부터 뚜껑을 연다)
 아이들 술냄새 나요. 포도주냄새 나요. 발가락 냄새요.
 교사 이런 냄새를 시큰하다고 하는 거야. 그럼, 장미물 냄새는?
 무선 한약 냄새 같아요. 음.

혜영 내가 먹는 한약 냄새 같다.
 교사 장미잎을 끓인 물인데 장미 냄새 나나?
 미강 아! 장미 냄새 난다.
 혜영 안 나는데....

2. 색깔 비교

(대야에 물을 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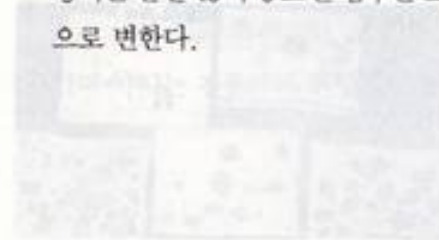
교사 어? 색깔도 다르네
 미강 보리수는 토마토 색 같아요.
 승진 장미는 볼색깔 같아요.
 혜영 장미는 장미꽃 색깔이다. 사과 색깔이다.
 무선 보리수는 수박 속 색깔 같아요.

3. 염색활동

색이 잘 나도록 백반을 첨가한다. 한지를 구겨 대야에 담아 물을 들인다.
 빨래줄에 걸쳐 말린다.

교사 (백반을 넣으며) 이건 백반인데, 염색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야.
 봉숭아 물 들일 때도 쓴다.
 수연 먹어도 돼요?
 교사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염색활동이 시작되고, 장미물은 한지를 넣는 순간 선홍색에서 포도색으로 변했다.
 아이들 색깔이 변했어요. 포도물이다.
 교사 작년에 포도 끓인 물 색깔하고 같네. 색이 왜 변했지?
 아이들
 장미는 물을 끓여 놓으면 검푸른 보라색을 띄다가 가라앉으면서 장미꽃색의 선홍색
 으로 변한다.



콜라주

활동일: 7월 1일

준비물: 보리수 염색지, 장미 염색지, 말린 장미꽃잎과 나뭇잎, 말린 보리수씨와 감씨 목공용 본드

교사 우리가 만든 염색지에 꽃잎과 씨앗으로 그림을 그려보자.

이 책 속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 수수께끼.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빨간색입니다.

미강 · 무선 진달래

교사 꽃은 꽃인데, 내 몸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아이들 장미

교사 그래, 이 책에는 지난 봄에 핀 장미꽃잎과 잎이 들어 있어.

책 속에 이렇게 꽃잎을 끼워 두면 잘 말릴 수 있거든.

꺼내서 그릇에 담아보자.

아이들 (책갈피에 끼워 있는 마른 꽃잎과 나뭇잎을 꺼낸다.)

교사 이건 보리수씨하고 감씨. 둘 다 말린 거야.

이 모두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 건데, 뭐 그럴까?

무선 이걸 붙여서 그리는 거예요? 풀이 없는데요?

교사 풀로 붙이면 떨어질 건 같아, 본드로 붙이면 돼.

무선 이건 종이죽 할 때 썼던 건데.

미강 그래, 이걸 마르면 반짝이는데.

교사 뭐 만들까?

아이들

교사 아, 생각났다. 장미꽃잎으로 꽃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감씨 주변에 꽃잎을 붙이면 꽃이 되네.

혜영 해도 만들 수 있겠다.

아이들 (교사의 시범을 보고 나서 여러 가지 모양 만들기 시작)

결과물

김성연 - 강아지와 장미

김진희 - 비 오는 날

박미강 - 허수아지와 참새

신혜영 - 분수대에서 노는 강아지



이무선 - 씨를 뿌리는 사람

한승진 - 춤추는 꽃

3) 전통차 소개

국화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식물이다. 봄에 새 싹은 나물로 데쳐 먹고, 여름에 무성한 잎은 속아서 떡에 넣어 먹거나 생즙을 내어 마시기도 하며, 가을에 만개한 꽃잎을 따서 술과 차와 떡으로 먹고, 말려서 베갯속이나 이불속에 넣어 향기로운 잠에 취해볼 수도 있다. 줄기와 뿌리는 말려서 약으로 쓴다. 1590년대에 쓰여진 <본초강목>에는 '오랫동안 복용하면 혈기에 좋고 몸을 가볍게 하며, 쉬 늙지 않는다. 위장을 평안하게 하고 오장을 도우며, 사지를 고르게 한다. 감기, 두통, 현기증에 유효하다'는 기록이 있다.

국화차

농약 등에 오염되지 않은 야생 구절초(혹은 선모초), 노란 감국의 꽃으로 만든다. 몸을 덥혀줘 꾸준히 마시면 월경불순 냉증 등 여성병에 좋고, 식후에 뜨겁게 마시면 소화 잘된다. 그러나 감국은 독성도 있어서 그냥 말려서 먹어서는 안된다. 납작하고 꽃잎이 큰 중국산도 많이 수입되고 있는데 방부제가 든 것이 많으므로 잘 가려서 사야 한다. 여러 가지 제조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소금을 넣은 뜨거운 물에 꽃잎을 데친 다음 소쿠리에 건져 냉수로 행구고 물기를 빼서 보관하는 것이다. 3~4송이의 말린 국화를 찻잔에 넣고 9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분 정도 우려내어 마시는데 4~5번 우려 먹을 수 있다. 따뜻한 물에서 3분 정도 지나면 예쁜 꽃송이가 활짝 피어나므로 녹차 위에 한송이씩 띄워 마셔도 향과 운치를 즐길 수 있다. 말린 국화꽃과 꿀(끓인 꿀)을 고루 버무려 오지그릇에 넣어 3~4주일 밀봉해뒀다가 끓는 물에 타서 마셔도 좋다.

참고문헌

『그리운 산야와 옛 선인들의 전통차』 저자 강우석 출판사: 사회교육연구회(1994)

『즐기며 마시는 전통차와 한방차』 저자 강선영 출판사: 동지

서울손님 맞이하던 날

신선주 · 충남, 갯골어린이집

7월 25일 아침

새벽차를 타고 내려오신 서울손님(김수연 샘, 서주희 샘, 임정수 샘, 이선미 샘)들을 웃는 얼굴로 맞이하면서도 갯골 샘들의 맘 속은 복잡했지요(반가우면서도 무얼해야 하나 걱정도 되고...). 그냥 놀러(?) 오신 줄로만 알았는데, 시설교류라는 목적성(?)을 띄고 갯골의 모든 활동에 참여코자 오신다는 사실을 안 건 바로 전날이었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었지만 날이 날인지라(휴가 전날이라 들뜬대로 들뜬 아이들과, 덩달아 들뜬 샘들) 갯골 냄새가 물씬 풍기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어요.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린 끝에 내린 결론은... 그냥 놀던 대로 놀자!

오리논으로, 잔디밭으로 산책하고, 아이들·샘들 구분 없이 앞마당 수영장에 뛰어들어 수영하고 하면 되지...

허나, 하늘도 무심하지. 그렇게 빌고, 기도했건만 아침부터 하늘에서 비가 왔답니다.

아래층에서 갯골이야기를 전해들으며 하하 호호 웃음꽃 필 때 교실에선 아이들과 무얼 하며 놀까? 하고 고민해야만 했죠.

하지만 기적(?)같이 비가 그치고 우리는 산책을 갈 수 있었지요.

갯골에서 멀지 않은 문당마을의 환경회관 뒷산 소나무숲에서 도깨비얘기, 나무얘기 하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남자선생님을 접해(?)보지 못한 아이들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어 하는 얼굴로 임정수 샘에게 매달리기도 하고 임샘은 커다란 소나무에 아이들을 매달아주며 매미놀이도 했지요. 소나무숲을 내려오면서 환경회관에서 공작도 보고 토끼에게 풀도 주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는 서울 샘들과 함께 봉숭아물들이기를 하고, 임정수 샘의 구수한 이야기(혹부리영감 동화책 읽어주기 - 정말 잘하시던 걸요)도 듣고 서울 샘들과 함께 낮잠도 자고...

아이들도 무척 즐거워하며 휴가 전날을 지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날 밤...

아침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넘어가 갯골에서 멀지 않은 식당에서(우리는 갯골 주변에서 모든 걸 해결하지요) 삼겹살을 구우며 이야기도 하고 임샘의 마술인지, 실뜨킨지 하는 것도 배우고 밤에는 해본 적 없는 논길 산책을 하며 다시 갯골로 돌아왔습니다.

계속 밤...

7세반 방에 자리를 펴고 (술..)담소를 즐기고 사무실에선 이선미 샘이 가져온 쑥뜸에 정신 팔려 손에 손! 쑥뜸하고.. (쑥뜸향이 며칠동안 가시질 않았답니다) 5세반 아이 부모님께서 살아오신 자주감자 먹으며(김수연 샘과 인연이 깊으신 분들이랍니다 - 대학농활때) 얘기 나누다 시간이 흘러 흘러 12시가 넘어서야 이불 펴고 누웠답니다. 결혼을 안한 샘들과 하미선 원감샘은 서울손님과 함께 어린이집에서 밤을 보냈지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 서울손님들은 새벽 차로 벌써 떠나시고 안 계시더군요.

7월 28일

1박2일 울동연수차 김지혜 샘, 김은숙 샘과 함께 서울에 갔습니다.

울동연수의 하루일정을 마치고 지친 몸이지만 설레는 맘으로 서울 샘들을 만나러 강남으로 향했습니다(사실 임정수샘께서 우리를 위해 작은 Meeting을 준비하셨거든요 -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면서... 미혼샘들을 위한...) 임샘 친구분들과의 간단한 Meeting을 마치고 씩씩이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여러 샘들이 남아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막힘 없이 탁 트인 씩씩이의 공간들을 보면서(화장실마저도) 우리 집같이 편안한 느낌을 받았지요.

비록 씩씩이 아이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씩씩이의 정취를 한껏 느끼고 왔답니다. 서울 샘들과 수다도 떨고, 우리아이들, 서울아이들이 무얼 하며 노는 지도 얘기 나누고, 이것 자체가 시설교류의 성과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갯골을 방문해주신 서울 샘들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서울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신 씩씩이 샘들에게도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다음에 다시 한번 놀러오세요. 갯골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아직도 그 날 밤이 생각나네요.

서울지부 근기법 모임 화이팅!

이수미 · 서울지부 회원

올 3월 서울지부 정기모임에서 보육 현장의 고충에 대해 자유토론시간을 가졌는데, 교사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지 못해 당하는 문제도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토론의 종반부에 가서는 자연스럽게 선배 보육교사들의 조언과 후배 보육교사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는 요구가 생겨 서울지부 근로기준법 연구(이하 '근기법') 모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근기법 모임엔 미나 쌤, 송이 쌤, 정수 쌤, 그리고 저 모두 4명이 모여 6월부터 출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첫모임을 되짚어 생각해보면,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꽤나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나봅니다. 처음 만남에선 서로 무엇에 대해 알고 싶은지, 또 모임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이런 소모임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의견이 달라 조율해가야 하는 부분도 생겼고, 모두 함께 쉽게 결정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먼저 보육교사회나 서울지부 다음까페(보육교사 119)에 올라온 보육교사들의 투고를 토대로 자신이 관심 있는 보육현장의 문제를 3개씩 뽑아서(4명×3문제=12문제) 그 중 모두 함께 연구할 3문제만 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문제를 뽑아와서 살펴보니(사실 난 그때 바쁘다는 핑계로 숙제를 해가지 못해 맘 속으로 무지 미안해했지만...), 공통되게 문제를 뽑은 것도 많고, 그 중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지는 문제로 2개만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첫모임에서 가졌던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그것을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에 따라 분석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사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공부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하나하나 어려움을 서로 이해하고 중재해 가며 풀어가면서 우리의 알지 못함에서 오는 불안과 무서움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노력의 결과물로 이번 서울지부 여름연수에서 어린이집 근무중 산업재

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촌극으로 연출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수 이후로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고자 희망했는데, 이는 우리의 이러한 열심 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근기법 모임이 더욱 튼튼해지고, 내용도 알차져야겠지만, 지금까지의 모습 속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는 모습 속에서 보육교사로서의 진정한 자존심이 세워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민족이 둘로 갈라진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둘로 갈라진 것도 모자라, 동서가 갈리고 이념이 갈리고... 요즘 같은 때에는 과연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적인 생각도 듭니다. 대북사업의 회오리 그트머리에는 자살이 있었고, 민족의 기쁜 날에는 어울려 잔치는 못 벌일 망정 불태우고 찢고 싸웠으며, 국제행사에서는 말도 안 되는 난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 시냇물 저쪽 · 이랑 · 꼬마구름 파랑이 · 를 읽어주고, 지도를 따라 서울에서 평양까지를 부르며 북녘땅을 맘껏 밟아보고, 통일무지개를 목청껏 따라 불렀습니다

지난 7월 저희 지부 연수에서는 연수프로그램 중 하나로 사무실에 쌓여있던 각종 자료집들을 소개하고 판매했습니다.

「풍.산.이.랑.살.이.랑」 아시죠?

보육교사회 경기지부 선생님들의 소모임을 토대로 하여 한국보육교사회의 자료집이 되어 우리 앞에 왔던 통일교육자료집. 다시 보고 내용을 살살이 살펴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때마침 지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지역의 가족단위를 주대상으로 하는 통일행사를 기획하고 있었고, 저희 지부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더 많은 아이들과 나누고 싶은 소박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그림책으로 함께 하는 반.전.평.화

1. 의의 및 목표

인류의 평화는 유아에게 평화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을 심어 줄 때부터 가능하다는 말이 있

다. 반전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자라나는 세 세대들에게 '그림책'이라는 친숙한 매체를 통해 전달하고 더불어 그 부모들에게도 평화교육과 통일에 대한 관심과 실행을 촉구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2. 주요내용

- ① 평화 및 통일관련 그림책 전시마당 : 전쟁, 평화, 인권, 공동체, 통일이라는 5가지 주제를 갖고 있는 그림책을 각 3-4권씩 선정하여, 간단한 소개글과 책 정보를 책과 함께 전시한다.
- ② 평화, 통일 교육관련 정보 제공 : 가정이나 공동체활동 속에서 할 수 있는 교육, 놀이활동과 연령별 도서 안내들을 리플렛과 책자 배포를 통해 알려낸다
- ③ 남북합작그림책 "령리한 너구리" 판매 : 최초의 남북합작그림책 판매를 통해 우리 민족끼리 함께 하는 활동들의 전망을 제시하고, 염가에 시민들에게 판매하여 선전효과를 높인다.

거창한 내용은 아니었구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역 정서와 수준, 요구도에 맞는 내용으로 기획을 했구요. '령리한 너구리' 책 경우에는 지역에서 전혀 알려지지 못한 그림책이었습니다. 출판사쪽에서는 무료배송에 반품 가능, 날권 판매 가능, 할인가 제공 등의 내용을 저희에게 제시하였고, 저희의 이런 기획안이 각 동별 통일축전과 목포지역 축전 등 동네주민들에게 주력한 을 통일 행사에 잘 어울렸나 봅니다. 저희를 각종 통일행사에 초청하였으니까요...

시민들은 저희가 준비한 작은 자료에도 고마워했고 전시된 책들을 사고 싶다고 달려들었습니다. 지역의 아이들은 도서관에 온 것처럼 책들을 재미있게 읽어냈습니다. '령리한 너구리' 그림책은, 시민들과 아이들에게 북한을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역통일단체들이나 공부방, 전교조 등 관련 단체들에게 통일교육, 과학교육 자료로 사용할 것을 섭외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지부에는 수익사업의 성과도 있구요...

실무력이 부족해서 많이 어려웠지만, 회원들의 높은 의지와 통일의 열정이 있어서 올 8월 광주 목포지역의 통일무지개는 활짝 피었습니다.

더위와 장마 속에, 열심히 준비하고 각자의 몫을 다하기 위해 함께 뛰어준 광주지부와 목포지회 선생님들... 지비들 모두 애쓰셨구만이라워! 내년엔 우리 책 들고 평양 가서 전시 한 판 해 볼까나 어쩔까나...



부산시 보육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결성식 보고

김 명 선 · 부산지부장

지난 8월 30일 부산시보육조례제정운동의 본격적 개시를 알리는 <보육조례제정시민운동본부 결성식>이 열렸다. 이미 한차례 일정이 미뤄진 터라 일기예보로 비가 온다는 확인을 하고도 그대로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오후 4시 본부 결성식을 마치자마자 대기해놓은 차로 당일 오후부터 시작하는 부산지부 여름수련회가 열리는 인양 소래농원으로 달려 가야하는 터라, 큰 행사 두 개를 겹쳐 집행하자니 아무래도 어수선하고 마음이 바쁘고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 실내 대관이 안된 상태라(이미 다른 행사로 대관이 잡혀 있어)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공무원노조의 협조로 친구청에서 야외용 천막을 빌려 우천시 천막행사로 진행하고자 준비해 나갔다. 그러나 당일 아침부터 상황이 복잡해졌다. 막상 빗속에 끌어다 놓은 천막이 조립용이 아니어서 마당사정 상 흠을 파서 기울 수 없어 쓸모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빗속에서도 아이들 손을 잡은 어린이집 부모님들은 서서히 물러 문화회관 앞 처마 밑 입구에서 복새통을 이루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하늘이 도우셔서 이미 대관이 되어있던 대강당의 행사일정이 단축되어 시작할 시간쯤에 실내공간이 빈 것이 확인되어 즉석에서 실내대관이 이루어져 다목적홀 대강당에서 실내 행사로 진행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고압계도 토요일 행사당일 아침부터 비까지 끊임없이 내려 발걸음을 무겁게 붙잡았을 텐데.. 씩씩하고 즐거운 걸음으로 보육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결성식에 포구나무식구들(아이들, 부모님들 교사 모두), 쌍쌍어린이집과 자유로운 방과후에서 떼거지(?)로 참석해주어 행사장에 힘과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다른 어린이집과 참가 단체에서도 회원들과 실무자들,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많이들 참석하였다. 우리 보육교사회 부산지부회원들은 행사 며칠 전부터 사무실에서 밤 작업을 해가며 카드섹션 그림작업을 준비했고 미처 끝내지 못한 일감을 뒷날 해야해야 어린이집까지 들고 가 어린이집에서 휴직회원들까지 가세해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행사당일 사전준비로 맞춰보았지만 그 정도로는 역부족이었으며 연습 안한 표를 얼마나 내던지 보는 사람들에게 한 장면도 맞지 않고 끝까지 틀려 배꼽 빠지게 웃음을 주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물했다.(특별한 즐거움에 끝까지 기여를 한 지체 높은 모 여인의 이름을 차마 밝히진 않겠다..)

역시 아이들의 에너지는 비가 와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행사라도 개의치 않고 자기들의 색깔대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무지막지한 힘이 있는 것 같다. 사전 연습과 준비를 위해 일찍 와 빗속에서 문전박대 당하며 주리를 틀던 아이들이 행사장이 확보되어 탁 트인 마루공간을 보자 마구잡이로 날뛰며 아우성이다.

덕분에 보육조례제정 운동본부결성식이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이 이 날의 주인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성과가 있었다 생각된다. 그래도 아이들은 문화공연에는 매우 집중하며 관람태도가 진지하고 훌륭하다. 누가 마이크 들고 연설이나 인사말 할라치면 주리를 틀고 제 세상처럼 날뛰며 소란스럽다가도 문화공연이나 노래 소리만 들리면 한 순간 고요해진다. 아이들의 높은 문화수준(?)에 감복하며 아이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화공연 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인사말도 공연으로 결의문과 경과보고도 공연으로... 등등... 모든 따분한 과정을 문화공연으로 말이다.

운동본부에 참여한 땀방울 단체들은 물론 많지만 보육의 주체인 보육현장, 부모와 교사들의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참여가 없이는 이 엄청난(부산시민 53,000명의 직접서명) 활동을 힘있게 끌어내긴 어려우리라 생각한다. 이날 시민운동본부 결성식은 보육현장의 교사와 부모들과 참가단체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보육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주기 위해 부산시 보육정책과 제도를 올바르게 세워내는 과정인 <보육조례제정운동>을 힘차게 함께 해나갈 것을 아이들 앞에 결의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부산의 보육조례제정운동은 우리 부산보육교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청구서명운동이 끝난 후에 보고 형식으로 다시 실기로 하고 우선 간단하게 경과보고와 운동본부 결성식을 중심으로 자료를 신고자 한다.

【부산시 보육조례제정운동 경과보고】

● 2003년 5월 16일 - 부산시보육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시민자치정책센터 김현 <과천시보육조례개정운동의 사례> 강의 / 부산보육교사회 <부산시 보육정책의 현황과 대안> 발제토론 ⇒ 22명 참가: 부산시 보육조례제정준비모임 결성과 추진을 위한 실행회의 정례화

● 6월 3일 - 부산시보육조례제정준비모임 1차 실행회의

5개 단체 준비모임 참가(부산보육교사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교육문화센터,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부산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 주민발의 조례제정방식 결정 인터넷 카페 개설 <부산시 보육조례제정운동 /cafe.daum.net/bsbo6> /수임인 500명 이상 모집결의 / 6월 30일 수임인 발기인대회 / 조례안연구 및 정리

⇒ 이후 일정 결정

- 7월 : 조례청구안 부산시 제출, 수임인단 모집

- 8월 : 조례제정운동본부 연대제안 및 운동본부 구성과 결성식, 수임인단 취합 제출

- 9월 : 청구서명 집중시작 / 보육조례제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

- 10월 : 집중 서명 / 부산시 담당 공무원간담회 / 시의원들과 간담회

- 11월 : 주민 청구서명 취합하여 시에 제출

- 12월 : 조례안 시의회상정 → 부산시보육조례 제정완료

● 6월 16일 - 실행위 2차회의

부산시 조례안 가안 상정 및 검토 / 수임인 발기인대회 준비

● 6월 24일 - 3차 실행위

보육조례 프리젠테이션 기획 검토 / 보육조례안 내부 토론 정리

⇒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 보육조례(가안) 확정

● 6월 30일 - 수임인 발기인대회: 45명 참가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여성신문, 시민의 신문, 케이블 방송에서 기사화)

● 7월 7일 - 4차 실행위 회의

⇒ 조례안 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의견요청 : 시민자치정책센터 (김현/하승수) /이후 연대확대 및 운동본부 구성에 관한 제안정리

● 7월 14일 - 보육조례제정을 위한 운동본부 구성 연대제안

공문발송(보육, 시민, 사회단체)

● 7월 21일 - 5차 실행위 회의

수임인, 청구안의 서명 날인에 대한 부산시 유권해석 요청

공문 답신 → 7월 7일자 법무12141-21428 회신 받음 : 서명과 날인 중 선택하여 기재가능

● 7월 24일 - 부산시 보육조례청구서 제출

부산시 보육 담당공무원 면담(김종복님, 강정보님)

● 7월 29일 - 보육조례청구 대표자 증명 교부 발급 받음

⇒ 청구서명 요청기간: 7월 31 - 2004년 1월 31일

● 8월 4일 - 6차 실행위

운동본부결성분담금 및 기획안 검토/청구서명방식 논의 (지역중심의 권역별 서명을 기본으로 실행, 연고 중심서명과 사회단체서명 홍보전 결합)

● 8월 12일 - 부산시보육조례제정을 위한 1차 대표자회의

22명(민주노총, 공무원노조 포함 18개 단체대표 참가)

● 8월 22일 - 운동본부 1차 집행위회의(10개 단체참가)

● 8월 28일 - 수임인1차취합 부산시에 위임신고서 등록(507명)

● 8월 30일 - 부산시 보육조례제정 시민운동본부 결성식(57개단체 참가단체확정)

【부산시 보육조례제정을 위한 우리의 결의】

아이들은 그 누구든지 행복하게 자라갈 권리가 있다. 부모가 있건 없건,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은 모든 아이들을 최선의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아이들은 바로 우리의 미래이자 전부이기 때문이다.

1.14%라는 사상 최저의 출산률 기록, 다양한 가족구조의 출현, 한 부모 가족의 증가 등 가족형태의 급속한 변화는 양육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요구하고 있다. 이제 보육은 일하는 여성과 맞벌이 가정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양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지원해 가야 할 시점에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 유아를 건강하게 보호, 교육하여야 한다"고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산시의 보육현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서 멀기만 하다.

참여정부는 출범 전부터 보육을 국가의 주요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중앙의 보육정책만으론 지역의 특수성을 파악한 실효성 있는 보육지원이 어려우며, 양육에 관한 문제를 총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우리는 지방분권 시대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부산시가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아이키우기의 어려움과 아이들이 살아가는 보육환경의 적극적 개선에 진심어린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가 대신 해주기만을 바라거나 행정기관의 시혜를 바라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은 보육시설 현장과 부모, 교사들만의 과제가 아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에 시민의 힘을 모아 보육조례를 제정해내고, 보육의 질과 공공성을 높여 우리 사회의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최선의 환경속에서 자라갈 수 있는 아이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부산시 보육조례를 시민의 힘으로 제정하고자 나선 이 길은 모든 아이들의 권리이자 모든 부모들의 권리이며 우리 사회의 과제를 함께 책임져 나가는 당당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부산시 보육조례제정 시민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 아이들에게 최선의 보육환경과 시의 보육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한 부산시 보육조례제정운동을 힘차게 벌인다
-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시의 정책수립과 책임성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 시의 보육행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책을 펼쳐내도록 한다.
- 부산시 보육의 공공성이 확대되고 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부산의 특수한 보육문제 현안 파악과 보육욕구와 해결과제에 따른 대안을 마련한다.
- 보육의 질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보육정책과 비전을 세워가도록 촉구한다.
- 아이들의 인권과 보육권리 확보에 부산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한다.
- 부산시 보육조례가 제정 될 때까지 부산시민들을 만나 청구서명에 참여시키며 반드시 주민 발의를 해낸다.

-2003년 8월 30일 부산시 보육조례제정시민운동본부 결성식 참가자 일동-

부산시 보육조례제정 시민운동본부 (554-9668)

아이들이 살기좋은 도시! 아이키우기 좋은 부산! 시민의 힘으로!!

【부산시 보육조례제정 시민운동본부 결성식】

때 : 2003년 8월 30일(토) 오후4시

곳 : 부산 학생교육문화회관 앞 광장 (초음 어린이 대공원내)

〈운동본부 결성식 행사흐름〉

주변마당

- 아이들의 길놀이
- 청구 서명운동 받기
- 소원지 적어 매달기
- 자료 전시

본마당

1. 대표단 인사 및 참가 단체 소개
2. 보육조례제정필요성 및 의의와 활동경과보고
3. 홍보대사위촉증서전달
4. 문화 마당:아이, 부모, 교사들의 공연(가면극, 노래공연, 카드섹션)
5. 참가자들의 대 합창(아이, 교사, 부모들/거울물오리, 햇별)
- 6/ 보육조례제정 시민 운동본부 발대식(결의문)

■ 부산시 보육조례제정 시민운동본부 (현) ■

부산보육교사회 / 부산지역공동육아협동조합(아이들세상, 쌍생, 쿵쿵, 자유로운) / 부산보육시설연합회 / 부산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 학장어린이집/ 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보육교사회,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여성문화인권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부산교육문화센터) / 부산여성연대회의 / 카톨릭여성연합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 /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 전국보건의료노조부산본부, 전국사회보호노조부산본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부산지역본부) / 민주노동당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경실련 / 부산환경운동연합 / 녹색연합 / 부산한살림공동체 / 부산생활협동조합/부산햇살공동체/생태유아공동체/ 부산인권센터 / 참깨희시민회의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부산연합(부산민족민주청년회, 부산여성회, 부산경남총학생회연합, 부산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민족자주평화통일부산회의, 부산노동자회, 부산농민회, 양산노동민원상담소,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협의회, 부산교육문화센터, 통일을여는사람들, 새물결청년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래극단희망새, 전국여성노조부산지부, 반송을사랑하는사람들, 노동영상집단공방, 내일을여는청년회,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부산지부, 양산여성회, 통일여성회)

아이들이 살기좋은 도시! 아이키우기 좋은 부산! 시민의 힘으로!!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서명에 나서 주십시오.】

인구 400만, 제2의 도시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부산의 보육현실과 양육환경은 너무나 열악한 형편입니다. 생활정치와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의 복지환경과 양육문제에 대한 부산시의 책임 있는 정책과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육아를 지원하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이 겪는 아이 키우기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보육사업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보면 대부분 포괄적인 보육지원을 위한 보육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조례를 바탕으로 그 지역의 특수한 보육문제와 현안 과제들을 탄력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라갈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산 시민들의 힘으로 보육조례를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 갑시다!

■ 부산시 보육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바뀝니다.

- ▷ 부산시 보육정책 강화로 보육의 공공성 확대! 시민들의 참여로 보육행정의 공개와 투명 운영!
- ▷ 보육예산의 증액으로 부산시의 특수한 보육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강화!
- ▷ 교사처우개선 및 대체인력지원, 재교육지원으로 보육환경과 보육의 질 개선!
- ▷ 방과후보육 활성화로 학교가 끝난 후 혼자 떠돌거나 방치되는 아이들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의 장 확보!
- ▷ 민간보육시설에(전체 보육시설의 80%) 대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
- ▷ 보육정보센터의 대 시민 육아 및 보육현장 지원 확대!
- ▷ 보육위원회의 활성화! 보육의 다양한 주체들의 균형적 참여로(부모, 교사, 시설장, 시민단체 등) 보육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강화가 이루어져 부산시 보육정책 결정과정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
- ▷ 정부지원시설(국공립, 법인보육시설, 영아·장애전담시설 등)의 공공성 강화 및 투명성 강화!
- ▷ 보육발전계획수립위원회 구성으로 부산시민들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
- ▷ 정부지원시설 위탁지정과 선정절차에 대한 공개와 투명성확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갈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부산시 보육조례제정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1 <부산시 보육조례제정> 카페가 만들어져있습니다. 누구라도 들어와 참여해 주세요.
보육조례제정 시민운동본부 참가단체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누구
에게나 열려 있으며 보육조례 제정운동에 관한 모든 자료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cafe.daum.net/bsbo6
- 2 보육조례제정을 위한 청구 서명에 함께 해 주세요.
주민발의로 보육조례가 제정되기 위해선 부산시내 거주 만20세 이상의 선거권을 가
진 시민 53000명 이상의 직접서명을 받아야만합니다. 혹 거리와 거주지역 공공시설
등에서 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요청이 있을 시 주저 없이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
오. 여러분의 서명은 아이들이 살아가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길에 가장 큰힘으로
보태집니다.
- 3 시민발의를 하기 위한 청구서명시 유의 점
번호는 쓰지 않습니다. 만 20세이상 선거권을 가진 부산시민(1983년 9월 30일 이전
출생)이면 누구나 청구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별로 용지를 구분하여 받아야 하
며 주민등록상의 현주소지를 정확히 기재(주택은 지번까지, 아파트는 동,호수)

부산시 보육조례제정 시민운동본부
(연락 : 554-9668 / 018-552-5116)



떨리는 마음으로 참가한 여름 수련회

한송이 · 서울, 씩씩이어린이집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을 안고 서울지부 여름 수련회를 처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이 어떤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이라 알
고 참가를 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1차 집결지인 청량리로 가는 중에 전철 안에서 MT를 가는 사람들이
수저를 챙기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수저는 잘 챙겼지...하는 안도감이 생
겼습니다.

도착을 해서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버스를 타고 양평으로 출발을 하였습니
다. 다행히 앉아서 가는데 왜 이리 차가 막히는지, 게다가 용문산에 들어가는 버스를 기
다리는 시간은 또 왜 그리 오래 걸리는지...

우여곡절 끝에 수련회를 하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해서보니 그동안 고생했
던 것도 잊고 숙소의 화려함(?)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짐을 풀고 주변 산책에 나섰습니다. 이성봉 선생님과 서주희 선생님과 함께... 주변
에도 참 멋진 곳이 많더라고요. 숙소로 들어와 보니 저녁은 다 차려져 있고, 주변 환
경에 넋을 잃는 바람에 그만 저녁준비를 못하였습니다.

저녁식사 후 근로기준법 모임에서 준비한 상황극을 발표하고, 조직전환에 대한 워크
샵을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모임을 그동안 하면서 수련회에서 어떻게 발표를 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발표하시는 선
생님의 애드립에 그런 고민을 잊고 말았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많은 부분 알고 있는 것
들이 있어서 질문에 대한 고민도 없었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읽고 가기는 하였지만, 조직전환 워크샵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
게 하였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나의 고정관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근로기준법모임을 열심히 하리라...'



지부 수련회 보고(1)

늦은 시간까지 워크숍을 하고 난 후라 배가 고팠는데, 역시 수련회의 하이라이트는 바비큐 파티가 아닐까 합니다. 너무 맛있어 정신 없이 먹고 나서는 신입교사 교육 동기들과 풀장에서 물놀이도 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주변을 산책하고 숙소 앞 개울가에서 텀별 물놀이도 하였습니다. 간단에 하는 물놀이라 재미있었습니다. 물놀이 후에 신입교사들의 OX퀴즈에서 선배에게 해야 하는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못하고 있네요. 그 약속도 지켜야 하는데...



지부 수련회 보고(2)

경기지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박양숙 · 경기지부 회원

오늘은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련회 가는 날!

박부자 선생님댁 농장에서 감자, 오이, 상추... 푸성귀를 한가득 차에 싣고 짧은 여정의 길에 올랐습니다. 미처 다 읽지 못한 교육자료를 읽으며, 창 밖의 풍경에도 가끔 눈길을 주며... 그야말로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1박을 하기로 한 말로만 들던 펜션에 도착하니 이윤경 공동대표님, 이경녀 선생님, 임정수 조직간사님... 자주 뵙지 못하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서울지부와 합동수련회를 갖기로 했나보다 생각하며 잠시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차에 저녁식사를 준비할 동안 바다에 나갔다 오자는 반가운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바다로 향했습니다. 서해 갯벌인 만큼 일몰을 보고 싶었지만 여름날 해가 어찌나 길던지...

배도 고프고 해서 펜션으로 돌아와 보니 우~와 맛있는 돼지불고기! 상추에 한가득 싸서 입 속으로 쏘~옥. 지금 생각해도 마른입에 군침이 돕니다.

식사를 마치고 워크숍이 시작됐는데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교사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노조로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내게는 크게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막연히 지니게 된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과 교사라는 허울 좋은 이미지에 싸여 있던 나는 노조와 교사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교육자료를 읽으며 노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와서 교육자료를 만드신 선생님들 이름을 하나씩 짚어보며 대단한 일 하셨구나 하고 느낀답니다...

워크숍이 끝나고 마련된 뒷풀이 또한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우선... 조개구이가 정말 맛있었구요. 많은 분들이 제 식성에 새삼스레 놀라 하는 모습이 좀 겸연쩍긴 했으나...

회원의 날이나 지회 모임때 뵙기는 하지만 사담 나눌 시간이 없어 항상 아쉬웠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이 제일 즐거웠습니다. 가끔은 수다 떠는 시간을 회순에 넣는 것은 어떠실런지.(호호...)



뒷풀이가 정리되어 갈 즈음 다시 바다로 향한 나를 비롯한 교진 선생님, 미화 선생님, 조직간사님, 영신 선생님은 밤이 깊도록 청춘의 영원한 화두! 사랑에 대한 짙막한 얘기를 나누며(가끔 갯벌에 염분을 더하기도 하며...) 만남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짧은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정수 선생님과 미화 선생님의 즐거운 말싸움이 저를 또 한번 배꼽잡고 웃게 만들었습니다. 재치 있는 미화선생님, 세심한 정수선생님! 좋습니다. 좋구요. 이번 수련회는 교사회에 좀 더 친숙함을 느낄 수 있었고, 어떤 명분을 갖고 활동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선생님들과, 이윤경 공동대표님, 이경녀 선생님, 조직간사님! 어려운 발걸음 덕분에 수련회가 더욱 알차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꾸벅!



그 때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박미영 · 광주전남, 도담도담어린이집

'아. 이것 좀 봐. 웃기지... 히히히...'

'아— 봐 봐. 미옥이 진짜 예쁘게 나왔어.'

'으옥수영복 입은 사진 누가 찍으라 그랬어...'

여름수련회 사진을 보면서 이런저런 할 말들이 많은가 봅니다.

목포에 있는 새꿈 담는 우리 어린이집으로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여름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좋았었죠. 제 말이 시시하다구요? 근데 그 날 분위기에 그 말이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몇몇 회원들은 선발대로 먼저 출발하고, 나머지 회원들은 근무를 마치고 출발하니깐 오후 6시쯤인가 목포에 도착하게 되었죠.

'와. 이렇게 우리 회원들이 많았나... 하나, 두울, 세엣... 너무 좋다.'

한달 전부터 수련회에 함께 가자고 갖은 협박과 달랠의 결과(?)가 아닌 듯 싶기도 한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원성이 자자할 것 같아서 정정합니다. 협박과 달랠의 결과물이 아니라 회원들의 자발적이 참여의 결과라구요. 어쨌든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 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워크샵 내용을 진지하게 듣는 모습이며, 워크샵 토론에 임하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모습, 그리고 그 결과물... 회원이 준비하는 공동체놀이. 조금 서툴긴 했었지만 얼마나 즐겁게 놀았는지... 아무래도 광주전남지부는 크게 될 것 같네요.

다음 날 간단하게 하반기 사업공유를 한 다음 바닷가에 가서 배도 타고, 비 맞으며 수영도 하고, 밥도 먹고, 올라오는 길에 무안 백련축제에 가서 연꽃도 보고, 사람 구경도 하고... 밥으로 따지면 얼마나 배불리 먹었는지 1년은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기분좋은 사람들간의 만남! 멋진 수련회로 기억될 것 같네요. 내년 여름에도 올해의 여름을 기억하며 더 알차게 준비할 수 있겠죠?





세상은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보인다.

김원희 · 인천, 생협예술어린이집

2003년 8월.

저 높은 하늘에 구멍이 뚫린 건 아닐까요? 참 오랜 기간 비가 내립니다.

토요일 오전. 딸내미와 내 여벌옷을 챙기고, 밀반찬을 챙기면서, 남아있을 신랑과 아들을 위해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해둡니다. 여름연수 출발 약속 시간은 오후 4시이지만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텃밭에 가서 김장 배추 심을 준비로 밭도 갈아 놓아야 하고, 오후 1시에는 어린이집에 들러 부모교육도 해야 합니다. 평소 얼마나 편했는지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네요. 어린이집에서 수건 두 장을 빨아서 꼬~옥 짜다가 물집이 터졌습니다. 으~ 쓰라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 봅니다.

추적추적 비는 내리지만 출발을 하고 보니 괜시리 마음이 들뜨는군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율왕리 해수욕장"에 도착하니 춥고 배고프고... 두 세 명씩 허기진 배와 추위를 이기고자 라면을 끓여 먹다가 "삼겹살 파티"를 벌입니다. 민박집 마당에 숯불을 준비하여 먹으면서 주인아주머니의 삼단에 걸친 불평불만에도 씩씩하게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 배부름의 여유를 그대로 "워크샵"에 들어갔고 다행스럽게 한 명만 잠깐 졸았답니다.

첫날 뒷풀이는 맥주와 꿀빵이 소면.

맛있게 먹으면서 하나 둘 사라지더니 4명만 남게 되었고 밤늦도록 잠이 안 온 것이 오히려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에 밤새는 줄도 모르고 쑹덕쑹덕...

아침이 되고 보니 온 세상이 깨끗해졌습니다. 새로 태어난 것처럼 아름답게 보이고 행복했습니다. 하루의 식사가 모래알처럼 씹히지 않았지만, 해변가를 돌아보고 민박집 앞마당에서 자리 깔고 하늘을 보며 누우니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고...

각자 어떤 생각으로 수련회에 참석했고, 또 얼마만큼 가지고 갔는지 알 수는 없었으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히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없고, 걱정스럽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들이 한 가지 고민으로 집중되지 않습니다.



보육교사 3년차!

어느 누구나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 환경을 소화해내고 받아들이는 개인적 역량도 다르듯이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보육교사 3년차를 각자 다르게 이해하겠지요?

그래도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파랑을 "이건 파랑이야"라고 말해도 듣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작용하여 결국 자기 기준으로 결론지을 것이니까요. 어찌면 처음부터 파랑이 아니었는지도 모르지요.

보육의 환경, 보육의 주체인 교사, 아동, 부모들의 인식도 상당한 부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보육교사의 자리 찾기가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보육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나아가 전 세계의 미래를 위해 우리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은 막중합니다. 스스로를 재적질하십시오. 희망을 크게 가지고 멀리 보십시오.





부산의 물오리입니다

박은미 · 부산, 포구나무어린이집

마지막 희망이라고 포구나무를 찾았다. 여기가 아니면 유아교육계를 완전히 떠날 생각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갔다. 개인적으로 부산보육교사회 회장님을 알고 있어 포구나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상상하던 것보다 집도 꽤 마음에 들고, 선생님들도 많이 지쳐 보이긴 했지만 왠지 모를 열정과 눈빛이 살아있어 더더욱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면접의 마지막에 조건을 하나 내거셨다. '우리 포구나무 교사들은 모두 보육교사회에 가입하고,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순간 당황했다. 못들 이유는 없지만, 왠지 강제적이라는 생각에... 뭐 하는 단체인지도 말 안 해주고... (아마 회장님을 알고 있어서 다 안다고 생각하셨나보다) 그래도 내가 아는 좋은 분이 대령이니 선뜻 내키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야죠...'

그리고는 포구나무에 들어가서 벌써 7개월이 지났다. 그 동안 지낸 소감... (항상 교사회에 오고가는 말이다... ..;) 아주 만족이다. 일하는 것 같지 않고, 놀러 다니는 것 같다. 그냥 사촌 동생들 집에 놀러와서 같이 노는 기분... 몸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마음이 편안하니 그도 느낄 새가 없다. 오히려 더 건강해 진 것 같기도 하다. 간혹 관계

맺기 어려운 아이들과 부모들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다고 하던데 포구나무에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으니 도대체 신경 쓸 일이 없다. 못한다고, 그건 아니라고 제재하고, 무시하는 선생님들도 없다. 그냥 내 마음 닿는 대로 놀래, 일하매 하면 되니 이렇게 좋을 때가...

그렇다고 포구나무가 편해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포구나무 안과 밖에는 정말 교사로서, 인간으



로써 본받아야 할 인물들이 많아서 더 좋다. 포구나무의 안이라고 하면 선생님들,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밖이라 함은 부산보육교사회쪽으로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항상 일하고, 놀면서도,,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 매일 뭔가 하나씩 배우고, 느끼게 된다.

특히, 보육교사회는 처음엔 마음내켜하지 않았지만, 포구나무에 대한 느낌처럼 이도 똑같이 만족해하고 있다. 워낙 개인적으로 조직, 단체를 싫어하는 주의다 보니 가끔 적용이 안될 때도 있지만, 좋은 일 많이 하고, 좋은 거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라 나도 덩달아 같이 좋은 일 하고, 좋은 거 배울 수 있어서 그냥 좋다. 단지 바램이 하나 있다면, 현재 부산보육교사회 소속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이 몇 안 되는 것 같은데, 좀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유아교육을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유아교육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도록 문이 좀 넓어 졌으면 좋겠다(사실 내 또래 동료교사들이 거의 없어 좀 쓸쓸(?)하다).

우리나라는 마음에 안 들지만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 되어있는데, 특히 보육부분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지원체제도 어수선하고, 그에 따른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대책들도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이에 한국보육교사회라는 진보적인 단체가 이러한 우리 보육의 후진성을 타도 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진다. 나도 여건이 되는 한 내 힘이 필요하다면 열심히 보육교사회와 함께 할 생각이다. 사람의 일이란 모르니 혹시라도 땀 길을 가게 된다 하더라도 보육교사회와의 인연은 끊고 싶지 않다. 다른 이유를 떠나서라도 나에게 보육교사회가 내 인생에 중요한 포구나무를 알게 해준 고마운 곳이기 때문이다.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녀의 항상성- 종교와도 같다.}

최선희 · 본회 명예회원, 현 참교육학부모회 사무국장

부평, 청천동, 햇살어린이집, 이명숙은 어쩌면 동일한 고유명사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이명숙 햇살어린이집 원장은 그곳에서 지역의 발전과 희망을 품고 살아온 사람이다. 변덕이 심하고 성절도 문제가 많은 나는 이명숙 원장의 항상성에 감동을 넘어서 경이롭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단 한번도 이명숙 원장이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설사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단지 우려하는 목소리로 높낮이도 없이 작게 그러면서도 대범하게 말하고 있는 그녀를 보고 있노라면 유난히 팔딱거리는 내 성격이나 성품의 보잘 것 없음에 한층 초라해지는 것을 느낀다. 세월을 적지 않게 살아오면서 사람이 늘 같다는 것은 매우 귀중한 성품이고 얼마나 지켜내기 어려운 것인가를 나는 알고 있어 그녀를 더욱 귀하게 보는 지도 모르겠다.

나를 취재해준 현숙이 언니도 고백했지만 우리는 보육인으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이명숙 원장으로 일치를 보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녀는 어쩌 보면 유아교육의 정통파이기도 하다.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곧바로 탁아운동에 뛰어들어 벌써 20년 가까이 초지일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녀를 보노라면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다.

86년 송림동 사랑방에서부터 시작된 그녀의 보육인생은 88년 공동부업팀 미성사로 일하면서 같이 일하는 미성사 엄마들의 육아문제를 역할 분담과 지역운동 차원에서 맡게 된 게 청천동의 삶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단층 슬라브의 그 집, 그곳은 청천동 사람들의 희망의 공동체였다. 객지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를 두고 만난 사람들. 만나서 좌절과 희망을 함께 나누어 이제는 내가 내

가 되고 내가 우리가 되어버린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이명숙이 그 곳에 있다.

우리 상회, 아람이가 그 보살핌 속에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그 지역 주변에 살면서 그의 손길을 빌리지 않은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고 본다.

10년 넘게 일곱 가족이 함께 하는 '햇살친목회'는 햇살에 아이들을 맡기면서 시작된 인연들이 지금까지 혈연보다 더 가깝게 햇살의 역사와 함께 숨쉬고 있다. 함께 하던 가족 중에 범수네 집 부모가 다 돌아가신 것을 너무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그녀는 조직활동에 있어서도 매우 성실하게 임해왔다. 때론 부담이 큰 회장이나 부회장으로 지역사회아동교사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인천지역탁아위원회, 민간보육시설연합회 회장, 인천여성민우회 회장... 어쩌 보면 그녀는 그녀가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언제든지 그 힘겨운 짐을 훌쩍 지고 조직을 한 번 더 일으켜 놓는다. 모두가 초창기 때 회장을 맡아 초창기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굳건히 자리하는 초석이 되는 것도 그녀의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5학년 된 성현이와 4학년 된 주현이가 있어 더 행복한 이명숙은 더 퍼주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 없이 지지해주는 안재환씨(부평남부자활후견기관 관장)가 있어 지역의 버팀목으로 굳건히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부부는 님은다고 하더니 그 부부가 그렇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넉넉한 인품으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부평을 청천동을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이명숙이 있기 때문이다.

9월 생일잔치때도 떡케익 배달 갈게...



2003 1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국민일보에 실렸다는 바로 그 가족사진.

에즈라 잭 키츠의 <내 친구 루이>를 보고 하는 혼잣말 나도 루이의 친구가 되고 싶다

김 정 애 · 부산지부 그림책 소모임 회원

글, 그림 에즈라 잭 키츠 | 옮김 정 성 원 | 비룡소 | 7,000원

에즈라 잭 키츠의 <내 친구 루이>를 보면 표지를 금방 넘기기가 어려워. 한 아이가 오래 눈길을 잡아끄니까.

커다랗고 칙칙한 담벼락을 따라, 빨간 티셔츠를 입은 남자아이가 어깨를 움츠린 채 땅바닥만 보면서 걷고 있어. 작고 외로워 보이는 그 아이! 루이야. 표지를 활짝 펼쳐서 보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루이의 모습이 더 외롭고 쓸쓸해 보여.

수지와 로베르토를 인형극을 하려고 오랫동안 인형을 만들었어. 그리고 드디어 인형극을 하는 날이 되었지. 무대 뒤에서 인형극을 보러온 친구들이 얼마나 되나 살짝 내다 보면 수지와 로베르토는 깜짝 놀랐어. '루이'가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야. 맨 앞줄에 앉아 인형극을 준비한 아이들보다 더 바짝 긴장한 채로 앉아 있는 루이는 외로운 '섬'처럼 보였지.

마침내 인형극이 시작되었어.

무대에 등장한 생쥐 인형이 사탕을 쥐고 모자를 쓴, 아기를 담은 인형 '구씨'를 소개했어. 그러자 갑자기 루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 뭐야. 아이들이 안 보인다고, 앉으라고 외쳐대지만 루이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루이는 앉기는커녕 몸을 내밀어 구씨에게 인사를 했어.

"안녕?"

구씨가 대답을 않자 잘 듣지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루이는

"안녕? 안녕?"



큰 소리로 외쳐대기 시작하고 공연장 분위기는 어수선해지고 말았지.

무대 뒤쪽에서 살짝 내다본 로베르토가 무슨 일인지 알게 되었어.

"이제 어떻게 하지?"

수지는 잠시 생각한 다음, 구씨의 목소리로 루이에게 말을 해.

"루이야, 안녕? 만나서 반가워. 근데 나랑 생쥐는 연극을 계속해야 해. 좀 앉아 줄래?"

루이는 구씨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고, 그리고 연극은 계속 되었지.

구씨와 생쥐가 벌이는 모험은 아이들을 즐겁게 했어.

연극이 끝나자 모두들 손뼉을 쳤고, 루이는 경충경충 뛰면서 가장 크게 손뼉을 쳤어.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 수지와 로베르토는 루이에게 구씨 인형과 작별인사를 하게 해줬어. 루이는 오랫동안 구씨를 꼭 끌어안고 있었지. 그리고는 루이도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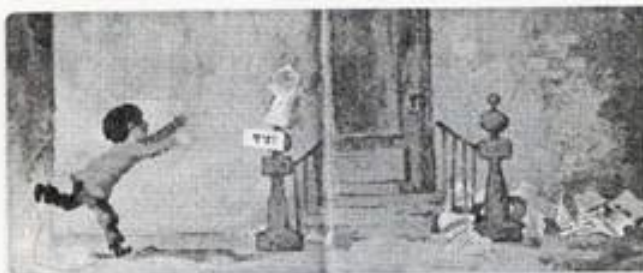
자기 방에 들어가 털썩 주저앉았던 루이가 깜짝 잠이 들었나봐. 루이는 꿈을 꿔. 구씨에게 커다란 아이스크림을 먹여주는 꿈. 아득한 허공에서 오로지 아이스크림을 먹이는 데만 열중해 있는데, 갑자기 구씨가 사라지고, 아이스크림도 사라지고, 루이는 아래로 아래로 떨어졌어. 떨어지는 루이를 보고 아이들이 막 놀려댔어.

"안녕! 안녕!"

하면서.

그 때 엄마가 루이를 불러 깨웠어.

아직도 꿈 때문에 슬픈 루이에게 엄마는 문틈으로 들어온 쪽지 이야기를 해줬어.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안녕! 안녕! 안녕! 밖으로 나가서 녹색 줄을 따라가 봐."

루이는 밖으로 나가 바쁜 게 줄을 따라갔어. 쓰레기통

을 지나 담벼락을 돌아...가보나... 어느 집 계단 앞에서 -혹시 수지의 집이었을까? - 구씨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루이는 와락 담벼들 듯이 구씨에게 달려갔어.

내가 만난 루이는 내면의 상처가 깊은 아이인 것 같아. 구씨 인형처럼 아기였을 때, 루이가 심한 결핍감을 느끼기라도 했던 걸까? 루이는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상처 때문에 친구들도 가질 수 없었던 걸까? 그것을 해결해 주기에 어른들은 너무 사는 게 힘들었을까?

다행히 루이는 구씨를 만났고, 구씨를 통해 수지와 로베르토라는 친구를 갖게 될 거 같아.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내가 다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라.

나는 '피터' 이야기들에서 예즈라 잭 키츠가 아이의 마음을 참 잘 아는 작가구나 싶었고, 참 좋은 작가다 생각했거든.

근데 루이와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즈라 잭 키츠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극한 마음을 또 한번 보았어. 특히나 가난하고 어두운 환경 속의 아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따뜻한 사랑은 '아이 만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나에게 커다란 울림을 줬어.

거의 같은 시기에 번역 출판된 <꿈꾸는 아이>(공경희 옮김/어린이 중앙)와 좀 뒤에 나온 <상자 속 여행>(공경희 옮김/어린이 중앙)을 같이 보면 루이와 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어린이 책을 만드는 목적은 실제에서 환상까지 나의 모든 경험을 아이들과 나누기 위해서이다. 나는 그 아이가 누구든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느끼며,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던 작가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기를 바라는 우리 회원들에게도 꼭 보라고 권해야지.

참,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을 주는 유화 그림과 이야기를 아이들이 좋아할까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아이들은 오히려 더 깊이 감정이입을 하던 걸.

행복한어린이집 아이들의 이야기

장명신 · 서울, 행복한어린이집

01 [아--내 자식만큼은--!!]

정모의 하원 카풀계획이 꼬인 어느 날, 어찌 어찌 하여 결국 엄마, 아빠와 정모가 차를 타고 오게 되었다.

엄마: 정모야, 오늘 엄마가 시간 약속을 못 지켜서 고생했지?

정모(6세): 응. 근데, 고생이 모아?

엄마: 응~ 그건...

아빠: 말하지마!

엄마: 왜? 그러니까, 고생은... 주저리 주저리... 이란다.

정모: 아- 이제 알겠어.

아빠: 흠, 내 자식만큼은 고생을 모르게 키우고 싶었는데!

02 [반말]

소진이(4세)를 데리고 친정에 마실을 갔는데..

소진맘:(초인종을 누른다)

외할머니: 누구세요?

소진: 네-저는 소진이구요, 애는 소진이 엄마예요!!

!!!!!!

03 [애벌레의 변신]

애벌레(장명신생의 별칭)와 결혼하겠다고 고집하던 규진이(4세). 결혼식장에서 애벌레를 만났는데...

애벌레:(질겁한 규진이를 보고) 규진아- 애벌레야!

겁이 엄청 많은 규진은 변신(?)한 애벌레를 보고 놀라서 엄마에게 매달려있다.

엄마: 규진아, 애벌레야.. 애벌레한테 가봐-

규진:(화난 목소리 반, 울음 섞인 목소리 반으로) 아냐! 애벌레 아냐!! 눈따람(눈

사람)이야!!

-알아볼 수 없게 떡칠(?)한 모습에 허--연 드레스가 규진의 눈에는 눈사람으로 보였나보다.. 결국 규진이는 애벌레를 알아보지 못했다. ㄱ. ㄲ

04 [코끼리와 고슴도치]

고추에 관심이 많은 이안이.

이제 구체적인 형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날 쭉쭉 달려오면서 하는 말

이안(5세): 엄마, 엄마! 아빠는 여기 코끼리가 산다!

엄마:(웃음이 터지며) 푸하하, 맞다 맞아.

이안:(제 말에 호응해 주어 신이 나서) 그리고, 웁...웁...

엄마는 여기 고슴도치가 살지?

엄마:(뒤로 뒤집어지며) 푸하하하!!!

05 [줄지에...]

외할머니와 이웃집에 놀러간 서현

이웃집 아주머니: 아휴~ 애가 살이 하나도 없네.. 서현이 너, 많이 크려면 밥도 많이 먹고 반찬도 많이 먹고 해야겠다-

외할머니: 그러게 말예요, 너무 적게 먹어서...

서현(5세):(잠시 생각하다가) 음..음...근데요, 우리 엄마는 땀날 밥도 안 주구요, 간식도 안줘요!! 그래서 그래요-

줄지에 어린 딸을 굶기는 매정한 엄마가 되었다.

06 [나도 공부 좀 하자]

어느 날 민중이(6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준: 아아~ 공부도 해야 되는데...

엄마: 니가 무슨 공부야, 공부는...

민준: 노는 것도 공부야--!!

07 [진실]

재중이네 카풀을 한 이안네. 약간의 어색함을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선 이안맘.

이안맘: 재중아, 이안이랑 같이 뒤에 앉지?

이안(5세): 재중아 나랑 같이 여기 앉자-아

재중(5세):(한참 고민하더니)근데요, 아줌마가 여기 앉으면요, 너무 똥똥해서 우리 차 고장나고, 차 고치러 카 센타에 가야 돼요.

이안맘:(충격!)아니, 재중아! 아줌마 안 똥똥해!

이안:(분노) 재중아, 우리 엄마 안 똥똥해~ 우리 엄마한테 똥똥이라고 하면 안돼! 재중아빠 수습에 나선다.

재중빠: 재중아, 아줌마한테 똥똥이라고 하면 안돼지~ 그치 이안아?

이안: 네, 맞아요. 그럼 안돼요.

재중빠: 근데 이안아, 너네 엄마 똥똥해-안 똥똥해?

이안:(잠시 침묵)똥똥해요...

이안맘: --. --;

배신녀 김이안...

사랑을 나누면...?

이정미 · 광주, 도담도담어린이집

아가들과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중 저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황미혜입니다. 잘 모르시죠?"로 시작된 내용은 감미로운 칭찬과 함께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거절할 수 없는 원, 고, 청, 탁.

"당연히 써야죠."라고 나도 모르게 대답해 버리고는 하루 하루가 무심히 흐를수록 부담 반, 후회 반이 되었습니다. 여러 날을 더욱 더 열심히 아가들을 관찰하며 '뭐 좋은 글감 없나?' 궁리해보지만 한 살바기 아가들에게서 글감을 찾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난 주 우리 반에 14개월 된 새로운 친구가 들어왔답니다.

이름은 임의정. 선생님들에게는 반가운 친구지만 우리 반 아가들에게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나 봅니다.

첫 날부터 귀염을 보이며 빠른 속도로 적응해가던 의정이가 새벽 바람에 그만 감기에 걸려 병치레를 하게 되면서부터 '암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정은이는 멀쩡히 미끄럼틀 계단을 오르내리며 놀다가도 의정이가 선생님과 가까워지면 바닥에 쓰러져가며 소리를 지르고 통곡을 합니다.

영문을 몰라 우선 정은이부터 안아주면 품에 꼬옥 안기며 예쁜 짓을 하고는 말짱!

이에 질세라 진성이는 서툰 걸음을 걷다 말고는 아-양.

우리 반 막둥이 온지는 매미처럼 선생님 무릎에 딱.

언제나 그렇듯 민후나 솔이는 친구들의 울음소리, 투정에 개의치 않고 열심히 놀아주니 그나마 감사합니다.

오후 귀가 차량이 출발하고 난 뒤, 늦은 낮잠에서 깨어난 진성이와 늦게 온 솔이에게 간식을 먹이고, 의정이와 정은이에게 분유를 먹여 놀이실로 나왔습니다. 정은이는 건

고, 의정이는 안고.

TV 앞에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진성이가 선생님의 등 뒤에 와서는 안아 달라며 울음을 터뜨리고, 정은이는 그런 진성이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며 으~ 소리를 지르고, 품에 안겨있던 의정이는 두 친구를 밀어내느라 안간힘을 쓰며 사람소리와는 다른 괴성을 지릅니다. 결국은 의정이를 왼쪽 무릎에, 정은이를 오른쪽 무릎에 앉히려하자 정은이는 끝내 뒤로 벌러덩 누워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보다 못한 회원샘이 정은이를 안아가니, 이번엔 진성이가 그 자리를 탐내네요. 진성이도 지난 주 수족구병으로 심하게 앓고 난 뒤라 어리광이 훨씬 늘어있는 터. 어제 오늘 의정이보다 진성이를 거의 안고 지내다시피 했거든요. 결국은 제 입에서 "선생님은 너만 사랑할 수 없단다. 어떻게 너만 사랑해 주길 바라니? 그러면 안돼요!"라는 말이 튀어 나와 버렸습니다.

"사랑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다..." 회원샘이 한마디 거둡니다.

"아니지요. 사랑은 나누면 화가 나지요!"

분이 안 풀려 씩씩거리고 있는 세 친구를 보며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씩씩해졌습니다. 갑자기 우리 어른들도 표현이 다를 뿐, 이렇게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엄청난 힘을 쏟고 사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말로써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지 못하는 한 살바기 아가들과 생활하면서, 아이나 어른이나 느끼고 생각하는 건 모두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더 잘 이해되기도 하고, 알미울 때가 있기도 하지요.

옛 사람들은 물에다

얼굴을 비추지 말라고 하는

'무감어수'(無鑑於水)의 경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을 거울로 삼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이 바로 표면에 천착하지 말라는

경계라고 생각합니다.

'감어인'(鑑於人)

사람들에게 자신을 비추어보라고 하였습니

다. 신영복님의 [나무야 나무야]에 쓰인 글처럼 저는 아이들의 표현에서 종종 제 모습을 비춰보곤 한답니다.

일년 전 송이가 태어났~네

주로미 · 본회 명예회원

오늘은 송이 돌.

상구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조촐하게 집에서 돌상을 차렸다. 간소한 음식과 아빠가 찍어주는 돌사진으로 송이의 돌은 1시간만에 끝났다.

그저 병긱병긱 웃는 송이와 가족 중에서 송이를 제일 좋아한다는 상구는 조금씩 닳아가고 있었다. 지금이나 그때나 숨쉴 틈 없는 엄마의 돌상은 한 치도 변함이 없으니 그 분위기에 자라는 두 녀석이 닳아가는 건 당연하겠지.

시간을 더듬어 과거로 돌려놓고 본다는 게 어설픈 정도로 빨리 지나갔다. 둘째라 그런가? 둘째 키우는 시간의 속도는 어제 일처럼 압축되어 다가온다. 세상사람들은 슬로우 모션으로 지나가는데 내 시간만큼은 필름을 되감듯 달려온 듯 하다. 상구만 있었을 때 느꼈던 정적인 생활과는 정말 대조적이다. 상구때만 해도 안절부절 정성을 쏟고 세심한 시선으로 일거수 일투족 마음을 쫓았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다. 느긋해졌는데 생활은 동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딸이라는 안도감(?)이 가족내 균형감을 가져다주었고, 이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덤으로 갖게 해주었다. 송이가 우리 곁에 와 1년의 시간을 함께 보낸 지금 우리 가족의 의미를 다시 써가고 있다.

갑자기 다가온 이 행운을 지켜내기 위해 남편과 나에겐 감사해야 할 일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 일년 전 송이가 태어났던 날도 우리 감사의 눈물을 흘렸었다.

2002년 9월 3일 (오후 4시 30분) 아빠가 씬.

아가야! 아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눈으로 보았다.

상구오빠가 태어날 때는 분만실로 들어갈 수 없어서 30시간을 밖에서 보냈었지. 근데 우리 둘째때는 초기진통에서 아가가 세상을 보는 순간까지 아빠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 담당의사에게 비디오 촬영을 허락받았는데 분만실에 다른 산모가 또 한 분 계셔서 중요한 순간을 촬영할 수 없어서 무척 아쉽고 서운했다. 이 순간을 담아서 송이가 성인이 되는 날 꼭 보여주고 싶었지. 너를 출산하기

까지 엄마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록해서 딸인 송이가 건강한 성인으로 사회성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래서 더욱 아쉽다.

송이야! 내가 태어나는 날, 아빠에겐 평생 기억되는 소중한 날이 될 것이다.

정확하게 9월 2일 밤에 입원했지. 출산예정일을 6일 지났고, 엄마나이 40이니 걱정도 많이 되기도 하고, 아기 몸무게가 4kg가 넘을 것 같다는 담당의사의 말이 무척 불안하게 했단다.

입원하면서 엄마는 너와의 만남을 위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긴 시간을 맞았단다. 엄마의 모습을 비디오로 담았어야 하는데 또 아쉬움이 밀려온다. 촉진제를 맞으며 유도분만을 실시하는데, 강도 높은 진통에도 호흡을 조절하며 애쓰는 너의 엄마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안스러워서 아빠는 눈물이 복받쳐 올랐다. 그 순간은 산고의 아픔이자 너를 낳기 위해 온 힘을 다 쏟는 엄마의 애씀이기도 하다. 그렇게 장엄하고 신비스런 순간은 본 적이 없다.



상구와 송이.

송이는 오빠를 무척 좋아한다. 오빠의 작은 동작에도 까르르 웃는다. 상구 또한 예쁘진 않지만 세상에 제일 귀여운 동생이라며 사람들에게 자랑한다. 이 사진을 친정식구들이 보더니 모두 하는 말, "이 집 애들은 하여간 사진발은 끝내줘."

온 힘을 다해 애쓰는 순간이 지나자 바로 분만실로 향했다. 이때 아빠가 촬영을 금지 당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상황은 정말 슬로우 화면처럼 기억된다.

정확하게 말해서 엄마의 자궁이 열리면서 너의 머리부분이 드러나고 작고 귀여운 몸이 쑥 빠지면서 거꾸로 들린 채 허리부분을 치자 가늘고 예쁜 소리가 나는 순간까지, 세상에 태어나 볼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것은 본 적이 없다.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들이댈 수 있을까? 그때 엄마는 산모의 고통도 잊은 채 단 한번의 소리도 밖으로 내지 않은 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더구나. 아빠는 그저 멍해진 채 얼이 빠진 사람처럼 보고 있다가 엄마의 볼에다 감동의 입맞춤을 했단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런 표현이었다.

엄마와 송이에 대한 사랑과 존엄에 대한 마음으로 한동안 정지된 채 서 있었다. 그리고 너를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더구나.

아빠를 보자 눈을 뜨지 못한 채 미소를 짓는 송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웃는 네 모습이 너무도 귀엽고 예뻐다. 아빠는 늘 우리 송이 아빠 닮지 말고 엄마 닮게 해달라고 했는데 나를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가 태어난 오늘.

아빠는 엄마의 모습에서 위대한 여성의 힘을 봤단다. 우리 송이도 아름답고 당당한 여성으로 자랐으면 한다. 송이야 만나서 반갑다. 사랑해.

여기고 있다.

장모가 있다.

나이 마흔에 팔볼볼 소리 들으며 우린 행복한 바보가 되어가고 있다.

보육교사의 큰 자리

- 자녀 동반자살 보도를 보며 -

박말신 · 광주전남지부 회원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백 만 불 시대라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레저, 문화, 스포츠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

지금의 보육 문제도 양적 문제보다는 보육의 질을 어떻게 높여 낼 것인가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그래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하다.

삶의 질을 얘기하며 여유롭고 풍요로움을 좇아가는 다른 면에는 아이의 병원비 3,000원이 없어 누군가에게 사정을 해야 하는, 그래서 결국 아이와 함께 자살을 하고 마는, 자본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낳을 수밖에 없는, 빈곤 계층이 있다.

7월, 8월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서 생활이 어려워진 주부가 아이들 셋과 함께 14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보도되었다.

이 사건을 전후로 카드값을 갚지 못해서, 임신한 여고생이, 대기업 회장이 자연을 거스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러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을 접하면서 보통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며 답답한 가슴을 쓸어 내렸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죽기 싫다며 울며 매달리는 아이들을 생각해 본다.

한 아이는 부모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한 국가의 국민으로 이 우주의 소중한 생명으로 많은 권리와 그리고 의무를 가지고 살아갈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를 부모라는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동반을 한다는 것은 커다란 죄악이고 무지의 행동이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아이들과 함께 죽음에 임해야 하는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겠다면 이 나라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미비함을 토로한다. 가난한데다 부모조차 없는 이이들을 돌보고, 올바르게 길러내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마련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경제적, 정서적인 이유로 벼랑 끝에 몰렸거나 벼랑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아동들이 90만 명이 넘는데 이 사회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다.

개인의 무능력이나 노력보다는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늘어만 가는 빈곤계층의 문제는 결코 남의 문제요, 먼 얘기만은 아니다.

빈곤 사회는 빈곤 가정을, 빈곤한 가정은 빈곤한 아동을 안고 있는 이 사회구조 속에는 언제고 동반 자살의 문제는 TV 보도에서 접하게 될 것이다.

부모 된 입장에서 자식에 대한 책임감은 가져야겠으나 주식투자로 진 빚을 갚을 수가 없어 14살, 12살 자식을 수면제를 먹인 뒤 동반 자살하는 이런 사건은 접하지 않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사후 대책을 위한 정책은 이제 바꾸어져야 한다. 가정해체로 인해 방치된 아동이 생기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정책으로.

실제 가정이 완전 해체되기 이전에 아동을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은 한 달에 20만~25만원 정도인데 방치된 아동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1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참여복지를 외치는 현 정부는 그 어느때 보다 복지의 문제에 대해 예방 정책을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펼쳐나가야 한다.

현대는 산업사회의 발달로 많은 여성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심리적 상대적 빈곤감은 더해가고 있다. 우리 보육시설의 주위에도 이러한 빈곤여성, 아동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 이러한 때에 보육교사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복지적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시설에 다니는 저소득 아이들의 가정에 적극적인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보육아동의 가정의 문제에도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회체제에서 우리의 보육교사의 위치는 얼마나 중요하고 큰 자리인지 많은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1990년 지탁연 시절, 부모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며, 부모들과 함께 했던 여러 가지 행사 속에서 같이 호흡하며 느꼈던 부모와의 친밀감은 빛 바랜 추억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의 어린이집에서도 그때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부모와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상담실 Q&A | 부당해고

이 코너는 한국보육교사회로 들어온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보육교사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 자기 권리는 스스로 찾읍시다.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실을 이용해주세요.

저는 법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6년 차 교사입니다.

직년까지는 월급 원장님이 원 운영을 10년 넘게 맡아 하셨는데 금년부터는 이사장님 이하 이사장님 부인까지 직접 개입을 하셔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두 분 다 경험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교사들에게 내년부터는 교사채용 시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것이고, 지금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호봉이 높아 월급을 많이 받는다, 결혼을 하면 그만둬야 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보육교사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으니 나가고 싶은 사람은 빨리 결정하라고 합니다. 운영자가 그만두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시설장, 임면권자)는 근로자(보육교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1항) 또한 결혼, 출산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2항)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거나(공금횡령,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일 경우에도 사용자(고용주)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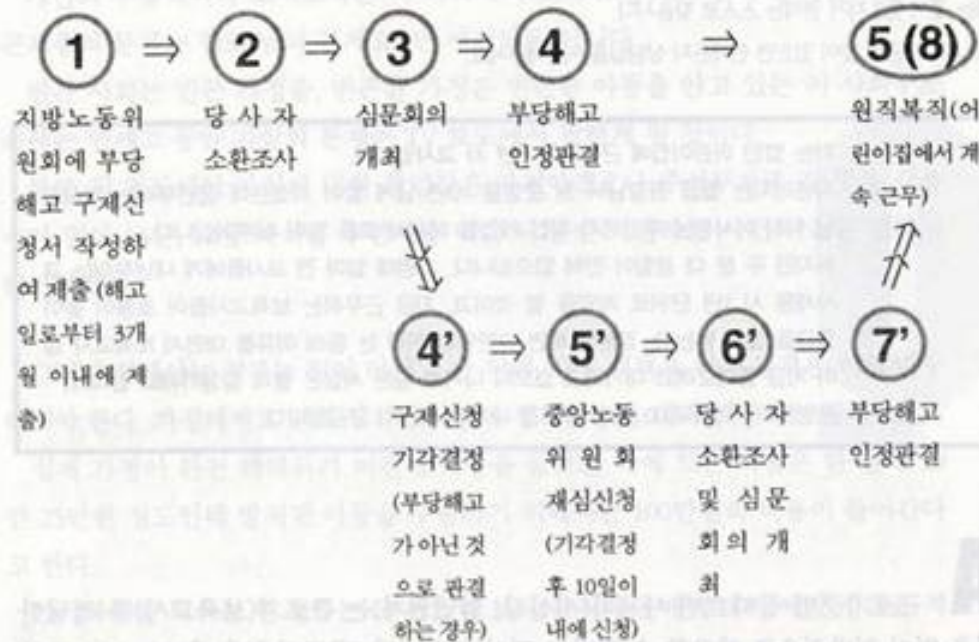
부당해고를 하는 사용자(고용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될 경우에는 해고당사자는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이 경우 접수를 받은 노동부(보육시설이 있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사실을 확인하여 부당해고로 판단하면 복직명령을 내리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강요한다면 이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알리고 거부해야 합니다.

또한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돌보는 직종이며 이는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경력자라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보육의 질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육교사들 스스로 인식하시고 시설에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절차 ☆☆



- 원직복직이 되면 해고일로부터 복직되기까지 기간동안의 임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각결정이 되는 이유
 1. 신청인(해고당사자)의 주장이 이유 없는 경우
 2. 신청인의 주장이 증거가 없거나 주장과 반대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구제신청시 주의할 점
 1.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한다. 부당해고는 그 정당성 여부를 사용자(고용주)가 입증해야 한다. 즉, 사용자가 왜 정당한 해고인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면 부당해고로 판명되기 때문에 해고당한 쪽에서 성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
 2. 일어났던 일을 정리하여 노조상담실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3. 시설의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 둔다. 부당함을 알릴 동료의 진술이나 증거 등을 확보한다.

새로운 세상과 만나기

김 휘 경 · 본회 정보간사

서늘한 가을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보드게임카페로 초대합니다. 보드게임이란 보드(놀이판) 위에서 진행하며 주사위나, 카드 등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입니다.



한국에서는 바둑이나 윷놀이 장기, 마작, 체스 등이 유명하며 외국상품을 한국화시킨 부르마블, 인생게임 또한 20년 가까이 젊은이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보드게임은 워(war) 게임과 가족용(family) 게임, 카드게임, 파티게임등 기준에 따라 광범위한 장르의 게임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보드게임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여타의 게임들과는 달리,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공동체적인 휴식을 강조한 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젠 친구들과 가족들과 보드게임을 해보세요.

Board Game과 음료를 함께 마시며 즐거운 가을날을 멋지게 장식하세요 -

📍 판카페

보드게임 카페, 매뉴얼 리뷰, 게임 판매, 비디오게임 정보, 체인점 모집 안내, 서울대점, 홍대점, 압구정점, 신촌점, 대학로점, 분당서현점, 광주 전남대점

<http://www.funcafe.co.kr/>

클럽플레이오프

보드게임 카페, 부루마블, 어콰이어, 캐시플로우 등 보드게임, 창업 안내.

<http://www.clubplayoff.com/>

홍대본점, 홍대1호점, 홍대2호점, 성신여대점, 한양대점, 신촌1호점, 명지대점, 인덕대점, 건국대점, 대구대점, 성균관대점

주만지

XBOX, PS2와 보드게임이 결합된 퓨전 게임카페.

강남점, 건국대점, 고려대점, 로테오, 신촌점, 일산점, 외국어대점, 인천대점, 인하대점, 한양대점, 이화여대점, 신천점, 연신내점, 안산점, 경남대점, 부산대점, 전북대점, 천안상명대점,

<http://www.cafejumanji.com/>



알림

보육시설의 사회복지기능 강화와 지역복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훈련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3년도 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의 사회복지기능 강화와 지역복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훈련'을 진행합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면 전문적인 서비스와 풍부한 자원의 확보로 지역의 아이들과 주민 모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보육시설의 연계망 형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여 건강한 아동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길에 여러분이 길동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일정(금~토 1박 2일)

- 대구권 10.10-10.11 힐사이드호텔
- 전라광주권 10.17-10.18 전남 화순 도곡온천관광호텔

강사진 소개

백선희 /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인주 / 볼런티어21 조직홍보부장

이은애 / 이화여대 성산복지관 이화어린이집 원장, 마포자활후견기관 실장 역임

임남희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부회장 역임, 현 안산 양지자활후견기관 실장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http://icarenet.kdta.or.kr>) · 접수확인 · 참가비 입금 · 접수 완료

대상: 보육시설 종사자, 지역 복지 · 보건기관 실무자, 보육 · 복지담당 공무원, 지역단체 실무자, 기타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자 등 선착순 30명

참가비: 15,000원

입금계좌: 외환은행 151-13-08079-2 황미혜(당일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주최: 한국보육교사회(02-2275-8505)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첫째날(금) 일정

14:00-14:30	접수 및 여는 마당
14:30-16:00	강의 1) 보육시설의 복지적 기능 강화, 왜 필요한가?(백선희)
16:00-16:30	휴식
16:30-18:00	강의 2) 보육시설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자원정보(송인주)
18:00-19:00	저녁식사 및 방 배치
19:00-20:30	토의)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보육시설의 역할과 관계형성 방안
20:30-22:30	관계형성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둘째날(토) 일정

7:30- 8:00	기상 및 세면
8:00- 9:00	아침식사
9:00-10:30	사례발표) 지역사회와 보육시설 - 사례를 통해서 본 지역연계 서비스
10:30-12:00	그룹웍샵 1) 우리 지역 복지망 만들기(이은애 / 임남희)
12:00-13:00	점심식사
13:00-14:30	그룹웍샵 2) 보육시설의 복지서비스 수행을 위한 모의훈련(이은애 / 임남희)
14:30-15:00	닫는 마당

• 본 사업 홈페이지 <http://www.icarenet.kdta.or.kr>를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미술치료 - 아동미술치료에 대한 이해와 기법실습

아동그림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미술치료 기법실습을 통하여 아동미술 치료에 대한 기초 이론과 미술치료를 체험한다.

일 시 2003.10.14 ~ 2003.12.02(8주) 매주 화요일 6시30분~9시30분

교육비 230,000원 (사전등록 10% 할인)

교과내용 1주 오리엔테이션 및 미술치료에 대한 이해(강의)

2주 아동그림과 발달문제(강의)

3주 미술치료 기법 실습 1(실습)

4주 아동그림과 정서문제(강의)

5주 미술치료 기법 실습 2(실습)

6주 아동그림과 대인관계문제(강의)

7주 미술치료 기법 실습 3(실습)

8주 아동그림과 신체적문제(강의)

제10기 이 * 강의 : 이론강의 및 사례소개, 간편한 기법실습

일 시 * 실습 : 미술작품 제작과 토론 등으로 이루어짐

주 최 유아교육 키드키즈(Tel: 02-588-0115)

홈페이지 www.kidkids.net

장 소 서초종합사회복지관 4층 4강의실(Tel: 02-588-0115)

손유희 특강

일 시 2003년 10월 18일 (토요일) 3-6시

교육비 30,000원 (교재제공)

주 제 주의 집중을 위한 손유희, 감성과 구연력을 키우는 손유희, 표현 놀이로서의 손유희, 영어 손유희, 이은경 창작 손유희 등

특기사항 수료증 수여(12시간 이수자)

인정서 손유희 지도자 인증서(20시간이상 이수자)

장 소 5호선 개롱역2번출구 상아아파트 상가3층 상아음악학원 (Tel: 011-212-9353)

연락처 011-212-9353, 02-407-8729
 입금계좌 우리은행 789-227937-02-001 예금주: 김순자
 * 선착순입니다. 입금하신 후 성함과 연락처를 전화나 메일로 반드시 알려주세요.
 * 촬영이나 녹음은 할 수 없습니다.
 주 최 이은경 동화구연 연기 연구소
 연락처 011-212-9353
 메 일 act23k@hanmail.net

장난감 창조교육

교육일시 2003년 9월 27일 오후 1시~4시 (3시간)
 강 사 이혜윤(장난감창조교육연구소 소장)
 장 소 동부여성발전센터(Tel: 02-465-1780)
 주 최 장난감창조교육연구소
 연락처 02-588-0115
 메 일 academy@kidkids.net
 비 용 30,000원(사전등록 10% 할인)
 내 용 I 장난감창조교육이란?
 II 우유팩은 장난감창조교육에서의 김치
 1. 프로펠라(2)
 2. 팽이(1),(2)
 3. 요술카드
 III 과자상자 버리면 후회 할 걸.
 1. 올라가는 곤충
 2. 케이볼카
 3. 흔들흔들 팽대
 IV 빨대를 무시하지 마라.
 1. 새피리

2. 배추벌레
 V 자장면 시킬 때 나무젓가락도 추가로 주문!
 1. 고양이 입에 생선
 2. 변신하는 종이
 준비물 1L우유팩, 쥬스빨대, 색종이, 떡꼬치 꼬챙이(12-15cm), 씨리얼 상자(없으면 과자상자2개), 털실 2m, 10원 동전 2개, 쥬스빨대, 우유팩대2개(겉질째) 연두색이나 초록색 매직, 나무젓가락2쌍, 과자상자 등
 * 준비물이 없으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준비물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숫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수량을 하나로 준비합니다.
 * 가위, 색연필, 칼터칼, 스카치테이프는 공통준비물로 필요합니다.

제10기 이은경 동화구연지도자(색동회) 초급과정

일 시 2003.09.28 ~ 2003.10.19(매주 일요일 오후 1~4시)
 대 상 대학생, 유아교사, 어머니, 유아관련 연구원, 재충전을 원하는 동화구연가 교사 등등..
 내 용 동화구연에 필요한 발성론, 음성표현법, 연기, 구연, 손유희, 수업활용법 등
 장 소 5호선 개롱역 2번출구 상아아파트 상가내 3층 상아음악학원 (Tel: 407-8729)
 교육비 10만원(초급 4주 과정)
 입금계좌 789-227937-02-001 우리은행 예금주: 김순자(011-212-9353)
 인 원 선착순 15명
 * 초급반이 조기 마감 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 선입금후 필히 연락바람. 환불 불가. 수료증 수여, 색동회 자격증과정임
 주 최 이은경 동화구연 연기 연구소
 연락처 011-212-9353
 메 일 act23k@hanmail.net

인천 보육현장 프로그램 사례 현장공모

인천광역시 보육정보센터에서는 보육현장의 교육·운영 프로그램 사례를 현장 공모합니다.

공모내용	운영 프로그램 및 행사, 교육/보육 프로그램
응모방법	응모 신청약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제출 ※ 응모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응모신청서 제출	2003년 8월 25일~9월 30일
제출처	인천광역시 보육정보센터(인천광역시 남구 주안1동 194-6호 2층)
공모내용 원고 접수	2003. 9. 15 ~ 11. 15
제출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원고와 원고가 담긴 디스켓, 기타 첨부자료를 제출)
시상내역	국공립 최우수상 1편(상금 200,000원) 우수상 2편(각 상금 100,000원) 민간 최우수상 1편(상금 200,000원) 우수상 2편(각 상금 100,000원) 놀이방 최우수상 1편(상금 200,000원) 우수상 2편(각 상금 100,000원)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된 작품의 저작권은 인천광역시 보육정보센터가 소유합니다. * 심사 및 시상식에 관한 내용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문의처	인천광역시 보육정보센터 032)865-3631~4
이메일	icda@icda.or.kr

2003 추계학술대회 “한국영유아보육시설 유형별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회에서 이번에 한국영유아보육시설 유형별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2003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으신 보육시설 원장님께서는 참여 신청 바랍니다.

일 정	2003년 11월 13일(목) ~ 11월 15일(토) (2박3일)
장 소	① 유형 11월 13일 ~ 14일 - 제주도 제주KAL호텔 (학술대회 일정) ② 유형 11월 14일 ~ 15일 - 제주도 서귀포KAL호텔(학술대회 종료후 시설 견학, 관광)
주 최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연락처	043-229-8268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주제명	기조강연 - 한국영유아보육시설운영의 이념적 방향 제 1주제 - 국·공립 보육시설운영의 현황과 발전방안 제 2주제 - 법인 보육시설 운영의 현황과 발전방안 제 3주제 - 민간 보육시설 운영의 현황과 발전방안 제 4주제 - 가정 보육시설 운영의 현황과 발전방안 제 5주제 - 직장 보육시설 운영의 현황과 발전방안 제 6주제 - 특수 보육시설 운영의 현황과 발전방안

2003 전국보육인대회-보육사업활성화 대토론회(가칭)

일 시	2003. 11. 14(금)~11. 15(토)(1박2일)
장 소	충북 단양팔경 대명 콘도
참가자	약 1,000여명
후 원	보건복지부
참가비	50,000원(자료, 숙박비 포함)
토론회	분과별 중심 보육발전활성화 토론(일정추후 공지)

유리드믹스 교육

강 사 장희숙(숙명여대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인스티튜트 선임교수)
일 시 2003년 9월 27일(토) 오후 1시30분~오후 7시00분 (교육시간:14시~19시)
인 원 100명 선착순 마감
장 소 학생체육관(남구 신정동 교육청 맞은편, 울산공고 뒤)
주 최 울산보육정보센터
문 의 052-266-4173 (담당 남미향)
교육비 25,000원 (센터회원:23,000원) *현장접수-25,000원
입금계좌 조흥은행 810-01-216587 울산시보육정보센터(참가자명으로 입금바람)
 전화(266-4173~4) · 인터넷 접수 (<http://www.ueic.or.kr>) 후 입금요망

- 편안한 복장, 운동화 착용하셔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 조기마감될 수 있사오니 필히 사전접수바랍니다.
- 접수기간 내에 입금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접수가 자동취소되어 대기자에게 기회가 넘어감을 양지바랍니다. 또한 참가취소는 교육시작 3일전까지 연락바랍니다.
-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장내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소식

- 7월 3일 보육단체연대회의 주최의 평화교육을 위한 교사 준비모임이 여성프라자 내 '별난 놀이터' 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회에서는 서정은님이 프로그램 개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 7월 5일 조직부장연석회의가 대전여민회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2003년 각 지부 여름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지부 조직부장들과 이윤경 공동대표, 임정수 조직간사가 참석하였습니다.
- 7월 7일 보육단체연대회의가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기획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7월 10일 보육단체연대회의 주최의 평화교육프로그램 발표회 준비를 위한 모임이 서울시어린이집 놀이방 연합회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회에서는 이강선주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7월 12일 인천지부 여름연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강사로 참석하여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 자리찾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 7월 14일 조직위원회 채팅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부 여름수련회 조직논의 워크샵 자료 사전검토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7월 15일 여연복지위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복지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7월 15일 청와대 "인구, 고령화사회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구정책의 주요부분으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사업활성화가 사회적 대책에 포함되어야 함을 전달하였습니다.
- 7월 16일 조직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부 여름수련회 조직논의 워크샵 자료검토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7월 16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주최한 '보육사업의 공공화 및 다양화 실행방안 연구' 발표회 및 전문가 간담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7월 18일 여성부 회의실에서 '보육정책의 새로운 관점 정립 및 개선방안 연구' 발표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발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 7월 18일 대구지부 지역방문이 있었습니다. 이윤경 공동대표, 이강선주 사무국장, 임정수 조직간사가 참석하였고, 대구지부회원들과 대구지부에 대한 중앙의 지원에 관한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 7월 19일 경기지부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윤경 공동대표, 이경녀 조직위원, 임정수 조직간사가 참석하였습니다.

- 7월 21일 여연에서 주최한 "저출산 시대 보육발전을 위한 범여성계 대토론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7월 21일 정책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조례제정운동 사례와 상담사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 7월 25일 충남 갯골어린이집 방문이 있었습니다. 임정수 조직간사와 함께 서울지부의 김수연, 이선미, 서주희 선생님이 방문하였으며 서울지부와 갯골어린이집의 시설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 7월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여성개발원 주최로 "보육시설 인종제 도입방안"에 대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7월 28일 보육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육아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7월 28일 "조례제정 사례집 발간"사업에 대한 시민운동지원기금의 중간방문이 있었습니다.
- 7월 3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3년 지원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중간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 8월 6일 이윤경 공동대표는 시민의 신문 기자와 만나 <한국보육교사회·시민의신문 공동기획 - "출산·육아는 사회적 기여다" 시리즈>에 나갈 내용 중 보육교사정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8월 7일 보육단체연대회의가 서울시보육정보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 대한 점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8월 9일 교육위원회 15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된 토론 내용을 정리하였고, 이후 교육위에서 정리할 내용의 항목을 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8월 9일 서울지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고영미 조직위원, 이윤경 공동대표, 임정수 조직간사가 참석하였습니다.
- 8월 11일 복지부의 보육사업연구 용역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8월 11일 보육단체연대회의의 주최의 평화교육을 위한 교사준비모임이 별난놀이터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회에서는 서정은님이 프로그램 개발자로, 이경너님이 교사 발표자로, 이강선주 사무국장이 사업진행자로 참석하였습니다.
- 8월 11일 여연이 주최한 보육발전을 위

- 한 간담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8월 12일 여연복지위 가족분과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위원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8월 13일 보육단체연대회의에서 주최한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보육현장제언" 토론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주제 발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한국보육교사회,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서울시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가 연대하는 보육단체연대회의에서 주최한 것입니다.
- 8월 14일 월간유아가 이윤경 공동대표를 인터뷰하였습니다. 이 인터뷰 기사는 월간유아 9월호에 실렸습니다.
- 8월 16일 광주전남지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김미나 조직위원, 이윤경 공동대표, 임정수 조직간사가 참석하였습니다.
- 8월 18일 이윤경 공동대표는 여연 등과 함께 한나라당 이원형의원(국회 복지위 간사)을 면담하였습니다.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의 필요성과 영유아보육법 개정 촉구를 전달하였습니다.
- 8월 20일 보육단체연대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토론회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 8월 21일-22일 대전에서 진행된 여연이 사회 및 정책토론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이사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8월 22-23일 대전지역 '보육시설의 사회복지기능 강화와 지역복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훈련'이 동학산장에서 있었습니다.
- 8월 23일 보육단체연대회의의 주최의 평화교육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회 이강선주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이경너님 외 4명의 보육교사들이 갈등해결프로그램 실천사례발표를 하였습니다.
- 8월 25일 집행부 상반기 평가회의가 있었습니다.
- 8월 26일 "아이 키우기 좋은 수원 만들기" 보육조례제정 시민연대에서 주최한 '수원지역 보육 지킴이 발대식 및 워크샵'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주제강연을 하였습니다.
- 8월 28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된 "보육시설 영유아의 건강·영양관리개선편안 및 정책제안 검토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8월 28일 돌봄에 관한 현장연구모임이 있었습니다.
- 8월 29일-30일 경기지역 '보육시설의 사회복지기능강화와 지역복지 네트워크

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훈련'이 경기중 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있었습니다.

- 8월 30일 교육위원회 16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15차 회의시 결정된 정리 항목에 대한 집필방향에 대한 세부논의가 있었습니다.
- 8월 30-31일 부산지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김미나 조직위원, 임정수 조직간사가 참석하였습니다.
- 8월 30-31일 인천지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박정애 조직위원, 이윤경 공동대표, 임정수 조직간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지부소식

서울지부

- 7월 20일 서울지부 회원과 다음카페 회원들이 여의도 공원에 모였습니다. 회원들의 친목을 빙자한 카페 정팅 모임이었지요.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따라 한바탕 달리고 나서 마시는 한잔의 술이 유난히 맛나던 날이었습니다.
- 7월 22일 서울지부 운영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상반기 평가 계획과 여름 수련회 회의 흐름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7월 23일 서울지부 집행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지부의 한달 활동을 점검하고 여름 수련회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 아이디어를 모으느라 집행부

들이 고생(?)했다는군요.

- 7월 25일 ~ 26일 서울지부의 김수연, 이선미, 서주희, 임정수 선생님이 충남 홍성에 있는 갯골어린이집에 시설 교류차 다녀왔습니다. 농촌 보육을 하고 있는 갯골어린이집에 가서 새로운 보육활동에 대해서도 배워오고 인심 좋은 갯골 선생님들의 열렬한 환대도 받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 7월 30일 서울지부 근로기준법 연구회 3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현장교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당한 현장사례를 분석하고 교사입장에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 8월 5일 수련회 준비 모임이 집행부를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수련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로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 8월 6일 근로기준법 연구회 4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연구한 현장사례 중 산재문제를 상황극 형식으로 꾸며, 수련회에서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준비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역할을 맡은 선생님들의 눈부신 애드립 연기가 돋보이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8월 7일 여름 교육연수 준비팀 뒷풀이가 있었습니다. 여름 연수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오윤정, 황호정, 김수연, 이성봉, 이수미, 서주희, 임정수, 최종문

선생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 8월 9일 ~ 10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서울지부 여름 수련회가 유명산 계곡에서 있었습니다. 멋진 숙소에서 좋은 사람들과 맛난 음식을 먹으며 오랜만에 회원들이 함께 어울려 활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조직전환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는 회원들의 모습에서 교사회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 8월 11일 홍보부 상반기 활동 평가 회의가 있었습니다. 신세대로 구성된 홍보부답게 인터넷 채팅회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소식지 발간과 다음 카페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 8월 14일 서울지부 확대 운영위 회의가 박인혜 선생님 덕(이경녀 선생님 덕도 됩니다...)에서 있었습니다. 운영위원들과 집행부장들이 모여 서울지부의 상반기 활동을 평가하고 하반기 계획을 잡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 9월 4일 근로기준법 연구회 5차 모임이 7시 30분 쯤이 어린이집에서 있었습니다. 김숙자, 백근영 선생님이 새로 합류하여 모임에 무게가 더 깊어졌습니다.

인천지부

- 7월 12일(토) 인천지부 여름연수가 있었습니다.

"보육교사의 자리찾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윤경 공동 대표께서 강의해 주시고 조별 토론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가족잔치(?)로 끝난 것이 못내 아쉬웠어요. 다음에는 동네 잔치(?)가 될 수 있겠죠?

- 8월 30(토) ~ 8월 31(일) 인천지부 여름 수련회 있었습니다. 을왕리에서 있었구요, '보육운동의 새 길을 열어나가는 보육노동조합'이란 주제로 이윤경 공동대표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사람 만나는 재미가 있다. 인천지부 20!!"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뜨겁게! 전하게! 확실하게!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 만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지요.
- 인천지부 영아 소모임을 소개합니다. 영아는 가장 기본적이고 발달의 시작인데 현장에서의 사례 자료가 부족하여 영아의 발달 특성과 교육적인 면을 공유하고자 뜻 맞는 선생님들이 모여 유아 발달부터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보다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한 실재에 바탕을 두며 영아 연구의 필요성을 느껴 만들어진 소모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아의 가장 기본적인 '전

강' 부분을 다루었고, 계속해서 영아의 심리, 정서 발달적 특징에 대해 공부하고, 그에 적합한 보육에 대해 다루기로 했습니다.

민간요법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인데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죽염 바세린, 겨자, 된장점질, 죽염식염수도 만들어 볼 것이며, 결과를 자료화 할 계획입니다.

현재 매월 1회, 세췌주 월요일 늦은 7시에 시작하여 2시간 정도 진행하는데 여섯 명의 회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임을 가지며 아쉬운 점도 많았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일도 있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면서 영아를 이해하는데 스스로도 많은 도움을 받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는 힘있는 영아 소모임이 될 것입니다.

경기지부

- 경기지부는 수원 여성회와 함께 보육조례제정에 관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 실정에 맞는 보육조례제정으로 교사, 아동, 부모 모두 지금 보다 조금 더 나은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육조례 제정팀 화이팅입니다.

- 지난 7월 19-20일 아름다운 선제도에서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멋진 수련회였습니다. 더욱 발전하는 경기지부가 될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 9월 20일에는 지회간 순회교육 2탄으로 민화교육을 합니다.

지난번 영양과 건강에 관한 1차 순회교육의 폭발적 응원에 힘입어 계속 주옥 진행됩니다.

- 지부운영위를 한 달에 한번씩 함에도 불구하고 정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인지 채팅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만나서 하는 회의만 못하지만 아쉬운 대로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광주·전남지부

- 7월 12일 교사여름연수 50명의 선생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두 강의 다 좋았던 평을 받았습니다.
- 광주전남지부 회지가 몇 년만에 선을 보여 회를 선전하는데 큰 몫을 다했습니다.

보육조례제정 사업, 한일 보육교류협의회, 현장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8월 8일-8월 13일까지 지역 통일축전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통일교육인터넷 사이트와 그림책 목록을 선전물로 나눠주었습니다. 반전 평화 그림책 전시와 더불어 남북합작 그림책 "영리

한 너구리"를 선전 판매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 8월 16-17일 여름 수련회를 목포 새꿈당은 우리어린이집으로 다녀왔습니다. 전체 18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날은 이윤경 대표님과 박미나, 임정수 선생님과 함께 열띤 조직논의 토론과 우리 회원(천미애, 김찬숙)들이 준비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둘째날은 하반기 사업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현장체험활동을 했습니다.
- 신세계 백화점 "에비부부 교실" 강좌를 여연과 함께 진행합니다.
- 9월 마지막 주 대동체 기간에 "보육의 투명성과 공정성 실현을 위한 보육조례 제정사업" 기금마련을 위한 주막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 10월 17(금)~18(토)에 지난 5월에 연기된 "보육시설의 사회복지기능강화와 지역복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훈련"이 전남화순도곡온천관광호텔에서 진행됩니다.
- 2003년도 광주시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진행하게 되는 "양성평등 육아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한마당" 사업이 추진됩니다.
- 10월 11일(토), 10월 25일(토): 거리 문화제(홍보자료 배포, 그림책 전시, 엄마아빠 소원 지 적기, 부모와 손바닥 찍

기, 부모와 함께 자전거 타기, 양성평등 육아 문화 올동 노래 선보이기, O X 퀴즈 맞추기 등)

- 11월(날짜 미정): 연사초청 이야기 마당(양성평등 육아문화에 대한 강의와 토론 참여를 통해 바람직한 육아문화를 모색한다.)

부산지부

- 7월 4일 조례운동 확대를 위한 실무회의(1시 동래인력센터) / 쿵쿵어린이집 조례제정교육
- 7월 7일 조례제정준비모임 4차 실행위
- 7월 8일 2차건강교육 <보건의료연대/예방의학, 어린이 질병 및 건강관리>
- 7월 16일 조직위 워크샵준비 회의
- 7월 18일 동래, 금정지구 교사,부모 모임(교육공동체건설)
- 7월 21일 5차 실행위 /호주제폐지를 위한 남성선언 취합 기자회견
- 8월 6일 유아성폭력대책위, 천주교 진상조사위 간담회
- 8월 9일 시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한 운동본부결성식
- 8월 9일 정책위 8월회의
- 8월 10일 동부산 주민한마당(평화와 통일을 위한 주민노래자랑)
- 8월 11일 조례제정 실행위 7차회의
- 8월 12일 조례제정운동본부구성 1차 대

표자회의의

- 8월 15일 민족공동행사 서울 시청대회
- 8월 16일 연수준비 사전모임
- 8월 17일 경상권 여름연수(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의 힘-놀이의 발견)
- 8월 22일 부산시조례제정시민운동본부 1차 집행위원회의
- 어린이 생태 환경교육 심화를 위한 교사교육(녹색도시 프로젝트)
8월 27일 강좌1: 자연건강법으로 아이 키우기
9월 3일 강좌2: 아이들의 건강한 몸 만들기
9월 17일 강좌3: 전래놀이의 생활화
9월 24일 강좌4: 자연물 놀잇감 및 자연재료로 환경구성
- 9월 5-6일 "보육시설의 사회복지기능 강화와지역복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실무자 훈련" 진행(삼성해운대연수소)

사람과 사람

축하합니다

- 경기지부 회원인 부천 동그라미의 박부자 선생님이 딸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경사스러운 수가, 늦둥이(?)랍니다. 고생스럽겠으나 기쁨은 엄청나겠죠.
- 부산지부 김양희 선생님 둘째 아들 병하의 백일이 7월 27일이었습니다. 뽏뽏

뽏뽏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복귀하십니다

- 부산의 쌍쌍어린이집 일을 그만두고 쉬고 계시던 차수련 선생님이 9월 1일부터 공동육아 쿵쿵어린이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다시 열심히 맘을 흘리실 차수련 선생님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환영합니다

- 김미정 선생님과 신아영 선생님이 서울 지부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모아 환영합니다.

회비를 내셨습니다

<평생회원>

최순옥 평생회비 완불

<중앙회비>

서은희 2만원 조선경 2만원 하미선 2만원
김은숙 2만원 김지혜 3만원
김지희 2만원 김호연 1만원 노수산 2만원
신선주 2만원 유정은 6만원
조선영 2만원 최루미 2만원

<후원회비>

오윤정 2만원 백선희 2만원 오영숙 1만원
권성준 2만원 김경인 2만원
김동현 2만원 김은주 1만원 김정윤 3만원

김종원 4만원 김진명 1만원
김현순 1만원 남명자 4만원 류호선 10만원
원 박선하 2만원 박은아 9만원
박차리 1만원 신주영 1만원 신현미 2만원
오선영 3만원 원명순 2만원
이주연 5천원 이지수 2만원 이현경 4만원
임태형 2만원 장성일 2만원
장혜주 1만원 하운하 2만원 한만우 2만원
최순옥 5만원 이난용 3만원
정현경 10만원

<자료회원>

박정희 3만원 오경희 3만원 장세자 3만원

편집부에서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랴던 말이 참으로 무색하게,
오랜만에 일가친척 모여 담소를 나누며 즐거워야 할 추석 연
휴가 태풍 '매미'로 고통의 연휴로 변해버렸습니다.

늘 그렇듯이 자연의 힘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인간
의 초라함을 봅니다.

비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집을 잃고 일터를 잃고 재산을
잃었습니다만, 전쟁터처럼 변해버린 그 땅에서 다시 일어서
는 사람들의 가슴 속엔 보름달처럼 커다랗고 환한 희망이 다
시 떠오르길 바랍니다.

두께에 비해 읽을거리가 풍성하고 보육현장에서 실제 경험
한 내용들을 소개해서 좋다는 '우리네 아이들'이지만, 딱딱
한 내용과 편집이 조금은 읽기 불편하게 여겨지셨지요? 여
러분에게 더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 조금씩 변화를
취하려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기획시리즈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의 자리 찾기"는 쉽
니다.

산골마을학교로 들살이를 떠났던 씩씩이어린이집 아이들이
좀처럼 보기 드문 소달구지에 몸을 실은 모습, 느긋하게 발
을 내딛는 소에 몸을 맡기고 '느림의 미학'을 체험하는 아이
들이 부럽다. (표지사진)

교사선언문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정치, 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와 보육문제에 관심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정회원이 되시면.....

- 매월 1만원(연회비 12만원)+ 지부/지회별 일정회비를 납부합니다.
- 지부, 지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정회원의 권리로써 사업에 대한 의견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갖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회 중앙과 지부에서 주최하는 교육행사 참여시 회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회 지부/지회에서 운영하는 각종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이나 판매자료 구입시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준회원이 되시면.....

- 연 6만원의 회비+ 지부회비를 납부합니다.
- 중앙 및 지부, 지회의 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자원회원이 되시면.....

- 연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며
- 격월 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 1년 구독과 본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각종 강좌와 행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회원이 되시면.....

- 월 5,000원 이상의 후원을 하고,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외비납부는

국민은행 019-21-0952-190 이윤경으로 입금하시고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2-2275-8505)

| 이런 일을 합니다 |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격월간지 '우리네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본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보육관련 자료 및 책자 발간
- 보육종사자 교육
- 보육관련 연구 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75-8505 / 전송 02-2275-850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kdta.or.kr> / e-mail: kdta@chollian.net

한국보육정보연구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68-3954 / 전송 02-2275-8506 / wawbest@jinbo.net